

Connect 360 성경공부

시편

믿음의 노래들

Made possible by your gifts to the Mary Hill Davis Offering® for Texas Missions
텍사스 선교를 위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리 힐 데이비스 헌금으로 이루어진 성경공부교재입니다

<인도자 지침서>

단 가너 (Don Garner)

스토펜 폰 와이릭 (Stephen Von Wyrick)

로버트 프린스 (Robert Prince)

로비 배럴 (Robby Barrett)

브래드 윌리엄슨 (Brad Williamson)

캐리 프로엘리히 (Carey D. Froelich)

비비안 콘래드 (Vivian Conrad)



Baptist Way Press®

달라스, 텍사스

시편: 믿음의 노래들

저작권 소유 © : 2017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개역개정성경, 1998 년에서 했습니다.

BAPTISTWAY PRESS® Leadership Team
Executive Director,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David Hardage
Director, Great Commission Team: Delvin Atchison
Publisher, BaptistWay Press®: Scott Stevens

한국어 집필위원

선택과 그 결과(여호수아, 사사기 연구)
(1 과 ~ 6 과) 구홍락 (미들랜드한인침례교회)
(7 과 ~ 11 과) 정경무 (서남침례교회)
(12 과 ~ 13 과, 부활절) 최승오 (중앙침례교회)
총편집 담당: 최승오 (중앙침례교회)

한국어 집필 팀장

팻 에컨(Pat Ekern), BGCT 교회건축센터,

초판 : 2017 년 8 월

BAPTISTWAY PRESS®

Dallas, Texas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각 장의 **학습계획**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순서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 **삶과의 연결**은 수업을 시작하여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두 번째 주제 **학습인도**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세 번째 **적용격려**는 참가자들이 공부한 말씀을 삶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도와 줄 것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각 과의 첫 페이지나 **'수업계획'**이 있는 지면에 공부하게 될 날짜를 적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하라. 수업계획표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E-Mail 로 수업계획표를 보내어 언제 무슨 과를 공부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당신이 교사 혹은 학생일 경우

1. 주중에 일찍 준비하라,
2. 공부할 내용을 개괄적으로 훑어 보라, 목차와 개요를 읽고, 공부할 각 단원의 들어가기를 읽도록 하라. 각과가 어떻게 그 단원과 연관되어있는지 이해하며 각과를 끝까지 공부하도록 하라.
3. 각과에 해당되는 성경구절을 깊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라.(각 단원은 저자가 좋아하는 성경 번역본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번역본을 사용하여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4. 성경구절을 모두 읽고 난 후, 저자의 해석을 읽도록 하라. 그 해석은 여러분의 성경공부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5. 각과의 보충설명들을 읽도록 하라. 그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주며 많은 교훈을 줄 것이고, 묵상하며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6. 각과의 질문들을 스스로 답해보도록 노력하라. 좀더 깊은 생각과 적용을 하게 하며 성경공부 자체에 도움을 줄 것이다.

☞ 당신이 교사일 경우

1.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2. 첫 시간에는 각과마다의 학과일정을 언급하며 간단히 개요만을 설명한다. 4 페이지에 있는 목차와 각과마다의 첫 페이지에 학과일정을 적게 한다.
* 만일 당신의 반원들이 모두 이메일이 있다면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이메일로 보내라.
3. 각과마다 지침서 역할을 하는 **인도자 지침서**를 구입하라(한국어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교사용 교재 자료들은 분반공부에 실제적이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제공한다.
4. 학습공과의 내용들을 다 공부한 뒤에 인도자 지침서에 나오는 교사를 위한 제안을 사용해서 당신의 반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취하고 응용하라.
5. 영어로 된 수업 보조용 프린트물들은 www.baptistwaypress.org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6. 그외 영어로 된 자료들에 대한 무료다운로드나 도서 구입문의는 1-866-249-1799 로 전화를 하거나 baptistway@texasbaptists.org 로 이메일 하라.

7. 더 필요한 교사연구용 준비자료들은 1-866-249-1799 로 전화를 해서 PDF 파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전체 13 과 자료가 1 인용 5 불이고 5 명을 1 그룹으로 해서 20 불이다.

8. Baptist Standard 는 1 년 구독료 10 불이다. 온라인(www.baptiststandard.com) 으로 주문하거나 214-630-4571 로 전화해서 할 수 있다.

☞ 영어로 된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 교재들은 amazon.com/kindle 에서 킨들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옆로드 중입니다).

☞ 영어로 된 오디오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 교재들로 일부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866-249-1799 로 전화하시거나 baptistway@texasbaptists.org 로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자 지침서 저자들

단 가너 (Don Garner)는 1 ~ 4 과의 "성경 주해"를 썼다. 가너 박사는 테네시 주 제퍼슨 시티의 카슨 뉴먼 대학 (Carson-Newman College)에서 구약과 성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목사, 인터림 목사, 성서 교사 및 수양회 지도자로서 다양한 침례 교회를 섬겼다. 그는 BAPTISTWAY PRESS®에서 4 개의 다른 글들을 집필했다.

스테판 폰 와이리크 (Stephen Von Wyrick)은 5 ~ 9 과의 "성경 주해"를 썼다. 와이리크 박사는 텍사스 주 벨톤 시에 있는 메리-하딘 베일러 (Mary-Hardin Baylor) 대학의 히브리어 성경 및 고고학 교수이자 베일러 대학 (Baylor University)의 종교학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BAPTISTWAY PRESS®에서 많은 집필을 했다.

로버트 프린스 (Robert Prince)는 10 ~ 13 과 수업과 부활절 수업의 "성경 주해"를 집필했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 웨인 스빌 시의 제일침례교회 (First Baptist Church)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다. 조지아 출신인 프린스 박사는 텍사스 주에서도 목사직을 수행했다. 그는 또한 서남침례교 신학교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뉴 올리언스 침례교 신학교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ies) 및 Wayland 침례 대학교에서 강사로 봉사했다. 그는 베일러 대학교 (Baylor University)에서 B.A 학위를 받았으며, 서남침례교 신학교에서 M.Div 와 Ph.D 를 취득했다. 그는 BAPTISTWAY PRESS®에서 4 가지 다른 과제를 작성했다.

로비 배럴 (Robby Barrett)은 1~3 과 수업을 위해 "수업 계획"을 썼다. 로비는 텍사스 주 아마릴로 제일침례교회(Amarillo First Baptist Church)의 교육 목사다. 그는 BAPTISTWAY PRESS®에서 수많은 수업 계획을 작성했다.

브래드 윌리엄슨 (Brad Williamson)은 4~7 과를 위한 "수업 계획"을 썼다. 윌리엄슨 박사는 텍사스 주 패서디나 남부 메인 침례 교회 (South Main Baptist Church)의 교육 목사다. 그는 20 년 이상 주일 학교에서 성인을 가르쳤다. 그는 BAPTISTWAY PRESS®에서 자주 활동하는 작가이다. 교회의 책임 외에도 서남 신학교 (Southwestern Seminary), Logsdon 신학교 및 B.H. Carroll 신학회의 강사로 재직했다.

캐리 프로엘리히 (Carey D. Froelich)는 8~10 과와 부활절 수업을위한 "수업 계획"을 썼다. 그는 최근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있는 교회들에서 40 년 이상 전임 사역을 하고 은퇴했다. 그는 현재 텍사스 San Jacinto Baptist Association 에서 교회 부흥을 위한 부국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의 사역에 대한 열정은 제자훈련이었으며,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을 위해 담임목사 청빙을 준비해주는 계획적인 인터림 사역, 혹은 전통적인 인터림 사역을 전문적으로 했다. 그와 그의 아내 카예 (Kaye)는 텍사스 주 베이 타운에 살고있다. 이것은 BAPTISTWAY PRESS®에 대한 세 번째 집필이다.

비비안 콘래드 (Vivian Conrad)는 11 과에서 13 과까지의 *인도자 지침서*와 *학습 공과*를 집필했다. 필리핀에서 국제 기독교 학교에서 '구약과 성서 연구' 를 12 년간 가르친 후에는 현재 텍사스 주 미네랄 웰스의 미네랄 웰스 시니어 센터 (Mineral Wells Senior Centre)의 전무 이사로 봉사하고 있다. Dallas Baptist

University 와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에서 기독교 교육학 및 신학 학위를 받았다. 비비안과 그녀의 남편은 텍사스 주 아즐 (Azle)에있는 클리어 포크 침례 교회 (Clear Fork Baptist Church)의 음악 및 교육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편: 믿음의 노래들

페이지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3
인도자 지침서 저자들	5

수업일

제 1 과	_____	만유의 주.....9 시편 2 편, 110 편
제 2 과	_____	하나님의 위대하심.....16 시편 8 편
제 3 과	_____	아름다운 인생.....24 시편 16 편
제 4 과	_____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기.....31 시편 22 편
제 5 과	_____	주께 맡기라.....39 시편 31 편
제 6 과	_____	용서의 기쁨47 시편 32 편
제 7 과	_____	생명을 갈망하는 것과 그 생명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54 시편 34 편
제 8 과	_____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61 시편 40 편
제 9 과	_____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68 시편 14 편; 53 편
제 10 과	_____	간절한 부르짖음.....75 시편 69 편
제 11 과	_____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에 대한 증언.....83 시편 91 편

제 12 과	_____	함께 경배하자, 함께 순종하자.....89
		시편 95
제 13 과	_____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라.....95
		시편 118
부 활 절	_____	경험하는 것, 믿는 것, 말하는 것.....102
		요 20:1-18

제 1 과	만유의 주
핵심본문 시편 2 편, 110 편 배경 시편 2 편, 110 편	학습주제 주를 대적하는 자들의 노력은 모두 헛되다. 왜냐하면 주님은 만유를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탐구질문 누가 만유를 다스리는가? 학습목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시편은 놀랍고도 흥미로운 고대 이스라엘의 경배의 노래들과 시가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시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졌던 경건한 믿음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 위대한 시편의 선집은 다양한 종류의 믿음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열정적인 찬양의 시편들이 있는가 하면 깊은 슬픔 속에서 탄식하는 기도도 있다. 각각의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활용되고 보존되어 왔으며,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과 슬픔의 순간을 모두 진실되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다.

학자들은 시편을 여러 종류의 장르로 나누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범주는 애도의 시편들로 이스라엘의 상실과 황폐와 슬픔을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에서 표현한 것이다. 이 외에도 시편에는 크게 지혜의 시편, 왕의 시편, 그리고 찬양의 시편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찬송의 시편과 창조 시편, 감사의 시편 등이 포함된다) 등이 있다.¹

이번 공부인 시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노래들에 포함된 열 세개의 과는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본적인 형태를 포함한다. 특히 이 학습들은 신약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가는

과정과, 예배에 사용되었던 시편들에 중점을 두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믿음을 토대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시편을 중요한 출처로 여겼다. 첫 과는 왕의 시편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이 시편들에서 세습 왕조에 의해 대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표로 이해되었다. 이 두 시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들이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여겨졌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땅과 그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주권(고대에 왕이나 여왕에게만 사용되었던 독특한 단어)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주신 율법(또는 토라)을 포함하는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를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름으로 신정(theocracy)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된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종종 온 땅의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표현한 것처럼,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현재적 하나님의 왕국인 새 이스라엘, 곧 교회의 왕으로 묘사하였다. 실제로 예수는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에 (눅 2:4),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새로운 왕에 대한 소망의 성취로 해석되었다. 예수께서 구약의 진리들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했던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는 “천국은... 같으니”라는 형식으로 비유를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몇몇 신약의 저자들은 이러한 왕의 시편들을 인용해서 예수를 히브리인들의 신정 전통과 연결시키고 예수를 왕으로 부각시켰다.

신약에 등장하는 시편 2 편과 시편 110 편의 인용

시편 2—행 4:25-26; 13:33; 히 1:5; 5:5; 계 2:26-27; 11:18; 12:5; 19:15

시편 110—마 22:44; 26:64; 막 12:36; 14:62; 눅 20:42-43; 22:69; 행 2:34-35; 히 1:13; 5:6; 7:17, 21

본문 해석

배경: 저자와 표제

전통적으로 “다윗의 시편들”이라고 불리기에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시편 전체를 쓴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 저자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자신의 시편들을 포함한 여러 시편의 글들을 모아서 찬송집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그가 유일한 저자는 아닐지라도 시편의 선집에 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

많은 시편의 위에 적인 머리말 또는 제목을 표제라고 부른다. 이러한 표제는 시편이 기록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표제의 단어들은 상세하기 보다는 간결하기에 여러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시편 110:1)라고 기록된 히브리어의 표현은 다윗 “에 의한, 에게, 위한, 관한, 또는 연관된” 등의 의미로 번역될 수 있다.ⁱⁱ

세상의 권세들의 반란 (2:1-3)

이 “왕의 시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선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그 분이 만든 것들에 대한 군주 또는 통치자로 묘사된다. 땅에 있는 만물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와 공급하심에 종속된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처럼, 인간의 본성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만의 길을 가기 원한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길은 시내산의 언약ⁱⁱⁱ을 세상 가운데 이행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 표현되어진다. 하지만, 세속적이고 경건하지 못한 세상 권세들은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길을 고집한다. “기름부음 받은 자”(시편 2:2;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용어는 이스라엘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을 지칭한다.

하나님의 응답 (2:4-6)

구약의 다른 전형적인 시들처럼 병렬구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표현된다. 여기서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그분의 목적을 무산시키려는 인간의 가련하고 쓸데없는 행위에 대해 비웃고 조롱하신다. 인간의 눈에 아무리 세상의 왕들이 강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즉시 심판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시온 산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 (2:2;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통하여 시내산 언약을 통해 주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왕이 말하다 (2:7-9)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인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항변을 한다. 만일 나라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대적하며 멸망시킬 것이다. 시편 2:9의 깨어진 질그릇의 이미지에 주목하여 보라. 이는 예레미야 19 장에서 유다의 죄악에 대해 행해졌던 하나님의 심판과 유사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며 완벽하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을 양자로 삼았다는 시적 이미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켜 준다. 곧 다윗의 혈통에 따른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이다. (참고: 삼하 7:8-17, 특히 7:14-16 를 보라).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마도 혈통적인 관점에서의 예언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윗 왕조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신학적인 진리의 관점에서 성취되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언의 성취는 다윗의 육적인 DNA 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대한 다윗의 영적 신실함으로 인해 "다윗의 자손" (마 1:1)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혜있는 자들과 힘있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 (2:10-12)

시편의 기자는 강하고 단도직입적인 도전으로 끝을 맺는다: 순종적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축복을 받든지, 반항함으로 멸망을 당하든지 선택하라! 권력을 의지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미래의 안전을 추구하려는 유혹은 강하지만, 풍성한 삶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

가장 좋은 선택은 세상과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근원이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당신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선하고 은혜로운 왕처럼 당신을 돌보실 것이다. 시대를 초월한 이 성경적인 진리는 왕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이스라엘 왕 (110:1-4)

110:1. 시편 기자는 이 "왕의 시편"을 이스라엘의 왕을 향한 하나님의 지침으로 시작했다. ("내 주"는 시편 기자를 대표로 한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백성들을 의미한다.) 왕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으로 ("내 오른쪽에") 세상에서의 그의 계획들을 이루어 갈수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패배시키시는 것이다.)

이 구절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말씀이다. 바리새인들을 찢찢매게 한 논쟁에서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함으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진리를 보도록 도와주었다 (마 22:41-46; 막 12:35-37; 눅 20:41-44). 또한 심문을 받으실 때에 이 구절을 다니엘 7:13 과 연관시켜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다 (마 26:62-68; 막 14:61-65; 눅 22:66-71).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이스라엘의 전통적 관점에서 신실한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보았다.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신실한 섬김으로 인해 그에게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주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완성하신 일에 대한 인정과 보상의 증거로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킨 것이다. 사도행전 2 장의(특히 행 2:29-36) 오순절 설교를 통해 베드로는

시편 110:1 을 인용함으로 왕이신 예수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역임을 선포하였다.

110:2. 하나님은 그 분의 뜻에 합하여 권능으로 (“권능의 규”)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신실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110:3. 왕이 바르고 정의로운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왕의 백성은 그의 지도력에 순종하여 적들과 싸우기 위해 전장으로 나갈 것이다.

110:4.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부터 선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순종적인 왕에게도 그러하실 것이다. 창세기 14:13-24 에서 초기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은 이방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멜기세덱이라 불리는 제사장 겸 왕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십일조의 예물을 드렸다. 멜기세덱은 당시 살렘(후에 예루살렘 = 샬롬의 도시)에 거주하였다. 유대교 뿐 아니라, 이후 기독교 신학에서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왕의 역할의 상징이 되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멜기세덱과 관련된 역사깊은 전통을 예수님과 연관시켰다 (참고: 히브리서 7). 예수님은 그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멜기세덱이나 그 어떤 이스라엘의 레위인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한 대제사장이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호하고 신비스러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14) 오랫동안 유대교인들의 상상을 사로잡았지만, 예수님은 그 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인 레위족의 제사장들이 이론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우신 예수께서 이루신 영적인 성취는 (참고: 히 5:5-6 는 시 2:7 과 시 110:4 을 인용한다.)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구원의 사역보다 더 위대하다.

핵심 의미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왕의 시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왕이 고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할 때에 불러졌다. 이러한 시편들은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집무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왕에게 늘 함께 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기름부음 받은 왕이 이스라엘과 세상 가운데 진리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할 것에 대한 증인이 된다. 만일 왕이 온 세상 가운데 시내산 언약의 원리와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종속될 것이다.

두 편의 왕의 시편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기적인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패배한 이방인들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러한 진리의 증거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10).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와 성취,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다. (참고: 요 10:10).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성경 공부를 소개하기 위해 *학습 공과*의 “시편 소개: 믿음의 노래들”을 참고하고 내용을 요약하라.
2. 시편 선집의 처음 부분은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을 언급하라.

성경 공부 가이드

3. 이 과의 연구를 위해 *학습 공과*에서 발견되어지는 다음과 같은 성경의 개요를 알려주라:
 - A. 반역과 응답 (시편 2:1-6)
 - B. 왕의 언약과 경고 (시편 2:7-12)
 - C. 여호와와의 우편에서 (시편 110)
4. 누군가에게 시편 2:1-6 을 크게 읽게 한 후 질문하라:
 -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대항한 나라들의 반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 이 구절들이 어떻게 신약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거부를 예견해 주는가?
 - 왜 이 나라들은 그들이 결박을 당했다고 생각했는가?
 - 이 나라들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 하나님은 이 나라들에 대해 어떤 강력한 발언을 하셨는가?
 -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시온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5. 학생들에게 2:7-12 을 보게 한 후 이 구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왕이 한 말이라는 것을 말해주라. 학생들에게 삼하 7:12-16 을 크게 읽어주라. 이 구절은 다윗 왕조와의 하나님의 언약임을 가르쳐주라. *학습 공과* 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글을 읽어주라. *학습 공과* 와 이 *인도자 지침서* 의 “성경 주해”의 정보를 이용하여 시편 2:7-12 을 더 깊이 설명하라.
6. 시편 2:7-12 을 더 연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다:
 - 열방의 나라들에게 주어진 경고가 무엇인가?
 - 이러한 경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어떤 면에서 이러한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있는가?
7. 학생들에게 시편 110 을 크게 읽게 한 후 토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 1 절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포적 의미는 무엇인가?
 - 시편 110 은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학습 공과* 의 “성경 주해”에서 시편 110:1 과 110:4 에 대한 신약의 참고 구절들을 보라.)
 - “만유의 주”가 단순한 타이틀 이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이 시편에서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적용 격려

8. 이과의 *학습 공과* 의 학습 주제를 보라: “주를 대적하는 자들의 노력은 모두 헛되다. 왜냐하면 주님은 만유를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질문하라: “당신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이번에는 정반대가 되는 질문을 하라. “당신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가?” 몇 분간 토론을 한 후 후속질문을 하라. “이러한 긴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살수 있는가?” 믿음만이 하나님의 주권적 신실하심에 대한 적합한 반응임을 제안하라.
9.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라.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는 금주를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

[끝]

제 2 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시편 8 편</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시편 8 편</p>	<p>학습주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위치를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엿볼 수 있다.</p> <p>탐구질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p> <p>학습목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는 방법들을 찾는다.</p>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이 유명한 시편은 창조의 시편들이라 불리는 범주에 속한다. (여기에는 또한 시편 19; 65; 104; 148 등이 있다.) 이 시편들은 한결같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이스라엘의 창조의 시편들은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뛰어난 디자인과 그것을 이루시는 능력을 모두 포함한다.

시편 8 편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대한 성경의 가장 고전적인 본문 중 하나이다. 하나님의 세상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뿐 아니라 다른 인간과의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위대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한다. 이 시편은 땅과 하늘과 모든 창조물 가운데 볼수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행하심에 대해서 간결하지만 심오한 시적 해설을 제공한다.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위대함에 대한 시편 기자의 감동적인 개인적 고백을 볼수 있다.

하지만, 창조된 질서는 비록 그 광대함과 놀랍도록 세심한 손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나, 그것이 전부 아니다. 모든 광대한 창조물들은 그 자체보다 더 위대한 무엇인가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창조의 시편은 그 강조점을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에 두고 있다

(참고: 로마서 1:18-25). 성경적인 신앙은 자연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신약에서의 시편 8 편의 인용들

마태복음 21:16; 고린도전서 15:27; 에베소서 1:22; 히브리서 2:6-8

본문 해석

표제

1 과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각의 시편의 표제들은 간결하면서도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다윗의 시”는 많은 기원의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윗 자신에 의해 쓰인 시일 수 있다. 또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찬송의 선집으로 다윗의 명령과 후원에 의해서 수집된 시의 하나일 수도 있다. 또는, 먼 후대에 다윗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시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없는 한, 표제이 내용에 관하여 독단적인 주장을 삼가해야 한다.

시편 8 편의 경우 “인도자를 따라 깃딴에 맞춘 노래”라는 표현은 (시편 81 편과 84 에도 같은 표현이 발견된다) 정의를 내리기에 난감하고 어렵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정적인 설명들을 제시했다. 어쩌면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음악 지휘자에게 주는 메시지로서 특별한 음악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의 스타일로 시편을 노래하거나 연주하라는 지시일 수도 있다. 또는, 가드가 올리브와 포도로 유명한 도시임으로 이 시편이 수확기의 축제 때에 부르도록 지어졌을 수도 있다.^{iv} 우리는 그저 이 구절의 의미를 추측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확히 그 의미를 모른다고 해서 이 시편 자체가 가진 강한 메시지가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영광스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8:1-2)

8:1. 시편 기자는 이 창조의 시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선포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 구약 전체와 후대의 히브리인의 사고에서 “이름”은 그것을 가진 사람의 성격과 본질을 상징한다.

히브리인의 아이에게는 태어날 때에 그의 삶을 대표할 만한 의미심장한 이름이 주어졌다. 이삭 (참고: 창세기 18:9-15; 21:6), 모세 (참고: 출애굽기 2:10), 그리고 예수는 (참고: 마태복음 1:21) 대표적인 예들이다. 또는 어떤 사람의 삶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 때에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곤 했다. 예를 들면, 야곱은 씨름 후에 이스라엘이 되었고 (창 32:28),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다 (마 16:16-18).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로서의 그 분의 본질과 성품을 강조한다. “아름답다”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영광스러운, 강력한, 기쁜” 등의 의미를 갖는다.⁹ 따라서,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은 강력하고 위대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다. 시편 기자는 마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보라. 출애굽과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 뿐 아니라, 태초의 창조부터 생각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이 시편을 노래한 자들을 포함해서 땅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통해 적절하게 선포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다 (시편 8:1 후반). 우리가 1 과의 왕의 시편에서 보았듯이,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간주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절대적 왕권으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들에 의해 둘러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참고: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욥기 1—2 장에서 볼 수 있다). 이 모든 왕의 신적 활동들은 넓은 지표면을 덮고 있는 광대한 궁창 위의 “하늘 위에서” 행해졌다. 지상의 그 누구도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광경을 볼 수 없다.

8:2. 한편, 하늘 아래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이 위대한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약한 들을 사용하여 강한 자들을 좌절 시키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기에 순진하고 연약한 어린 아이를 사용해서 성실하지 않은 자들을 도전하시며 악을 행하는 가장 악한 자들도 무너뜨리신다.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어린 아이에 관한 예리한 설교를 통해 왕에게 신실하도록 도전했는 지를 되새겨보라 (이사야 7 장을 보라).

더구나,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경험할 때에 순전한 신비와 순수한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어린이들은 그들 주변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날 때에 순전한 행복으로 가득하다. 새로운 것들을 마주할 때에 신비함으로 충만한 어린이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순수하지 않은 어른들에게 좋은 모델을 제공한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마 18:1-4).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 욕심 많은 악한 자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하셨다 (마 21:12-13; 렘 7:11).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 호산나를 노래하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 보시며, 이 시편 8:2 의 구절을 인용하셨다 (마 21:15-16). 예수님은 기쁨으로 가득한 어린 아이들의 노래가 자신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인준이라고 이해하셨다. 비록 침울한 유대인의 권세자들은 그를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분노함으로 반대했지만 말이다.

종종 성경의 이야기나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냉담하고 방어적인 성인들 차원의 죄와 온유하고 순종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의 영광 - 겸손한 생각 (8:3-5)

8:3. 밤하늘 아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을 수놓고 있는 “달과 별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적 손길의 결과인 것이다. 하나님은 지평선을 가로지르는 어두운 밤하늘을 작은 빛들로 채우신 것이다.

8:4. 이처럼 광활한 밤하늘의 광경을 보면서 어찌 인간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끝도 없이 큰 하늘에 비해 볼때에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 (또한, 시편 기자가 살았던 세상은 우주의 거리를 재는 광년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지 못했던 때임을 명심하라.)

8: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매우 특별한 신성을 부여하셨다 (참고: 창 1:26—하나님의 형상, 창 2:7—하나님의 생기).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정체성으로 인해 인간은 “엘로힘” (영어의 NRSV와 NASB에는 “하나님”으로 번역) 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된 것이다.

히브리어 *엘로힘*은 “하나님,” “신들,” “천상의 존재들” (NIV84), 또는 “천사들” (KJV, NIV)로 번역될 수 있다. 요점은 인간이 하늘의 존재보다 약간 낮은 존재이기는 하나 땅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위대한 존재라는 점이다. 시편 8:6-8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창조주가 위임한 권위 (8:6-8)

8:6. 시편 기자는 마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기여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창세기 1:26-28의 말씀을 선명히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면에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27에서 시편 8:6을 인용하여 예수께서 둘째 아담과 같다는 주장을 하였다 (고린도전서 15:20-28). 전적인 인간의 실패로 죄와 사망이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들어온 것처럼 생명의 구속과 회복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실한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고전 15:21-22).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모든 대적들에 대한 승리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실 것인데 (고전 15:27),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께서 만유의 주 되심에 대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증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마저 하나님의 뜻과 목표에 복종한다 (고전 15:28).

이와 비슷한 형태로 히브리서의 기자는 만물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것임을 주장했다. 히브리서 2:6-8 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시편 기자가 말한 바로 그 뜻을 성취했다는 것을 읽게 된다. 또한, 예수님은 온전한 겸손과 극한 고난을 통한 순종으로 (참고: 빌립보서 2:6-11), 모두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다.

에베소서 1:22 또한 다른 신약의 저자들과 함께 시편 8:6 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한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는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서 다스리신다 (에베소서 1:20).

8:7-8 모든 가축과 들짐승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도 인간의 통치에 복종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주신 권세를 잘 관리할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있다.

결론적인 찬양의 외침 (8:9)

시편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한 것처럼 (시편 8:1), 이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다시 한번 끝을 맺는다. 이렇게 같은 요소로 시작과 끝을 맺는 문학적 기교를 인클루지오(inclusion)라고 부른다.

인클루지오는 고대 문학에서 매우 평범한 수사학적 요소 중 하나이다. 이것을 통해서 독자들은 하나의 구성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곧 시편의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한 주요 개념을 반복함으로써 괄호로 묶어주는 것과 같다.

시편 기자는 같은 구절의 반복으로 감동적인 종결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중심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된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고 강력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핵심 의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종종 어린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한 것들 속에서 발견된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밤하늘의 별들, 힘을 북돋아 주는 태양 가득한 호수, 마음을 열어주는 새로운 경험, 영혼을 맑게 해 주는 아기의 해맑은 미소, 희망을 주는 새싹의 발아, 용기를 주는 친구의 한 마디, 영혼을 소생시키는 아름다운 시편.

창조의 시편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한다. 시편 기자는 교회의 건물 안이 아니라, 하늘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음에 주목하라. 기독교의 큰 성당이나 성전도 이러한 개념을 이용하여 매우 높은 둥근 지붕이나 아치형의 천장을 통해 마치 하늘 아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재현한다.

과학의 새로운 발견들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 본적이 있는가?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한 놀라운 과학적 발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기이함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허블 망원경에 의해 촬영된 우주의 사진이나, 현미경에 의한 인간의 게놈 지도 등을 통해 오늘날 인류는 시편 기자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내다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창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결코 시편 기자가 시편 8 편에서 감동적으로 기록한 놀라움보다 더 뛰어나지는 못하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자연 어디서나 발견된다. 또한, 예배를 통해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조율되어야만 한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학생들이 도착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라: “당신의 생각에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룹 멤버들에게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준후 몇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라. 다음과 같이 다시 질문하라: “당신이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의 업적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비교해 볼때 어떠합니까?”
2. 토론이 끝나면 *학습 공간*에 나오는 아폴로 11 호에 관한 이야기로 관심을 돌리라. 글을 크게 읽되, 특별히 마지막 문장을 강조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또한 그 창조물들 가운데 인간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시편 8 편은 이러한 역사적인 여행에 걸맞는 뛰어난 선택이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창조물들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배울 것임을 소개하라.

성경 공부 가이드

3. 한 학생에게 시편 8:1-2 을 크게 읽게 하라. *학습 공과* 에 나오는 정보와 이 *티칭 가이드* 에 있는 “성경 주해”를 바탕으로 각 구절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라.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라:
 -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구절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 하나님의 본질이 어떻게 그 분의 이름에 반영되는가?
 - “하늘을 덮었나이다”라는 표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와 한도는 무엇인가?

4. 3-4 절에서 시편 기자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향하고 있음을 언급하라. 누군가로 이 구절을 읽게 한 후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시편 기자의 관점은 무엇인가?
 -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시각에서 볼때 시편 기자의 인간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

토론 후 몇몇 반원들로 하여금 3-4 절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말로 표현하도록 해보라.

5. 5-9 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목적과 위치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이 구절들을 함께 읽은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라.
 - 하나님보다 (또는 천상의 존재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광은 무엇인가?
 -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예 (또는 책임)는 무엇인가?
 - 1 절의 말씀이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에 다시 반복된 이유와 중요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6. 시편 기자의 주제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질문하라. 몇 사람이 대답을 한 후, 시편 8 편을 인용한 신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라. (마 21:16; 고전 15:27; 엡 1:22; 히 2:6-8). 학생들에게 골로새서 1:15-17 의 말씀을 소개해도 좋다. 이 말씀은 만물의 창조와 유지가 모두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묘사하면서 시편 8 편의 여러 구절의 말씀들을 반영하고 있는 듯 하다.

적용 격려

7.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잊곤한다. 하지만, 이 시편은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영광과 명예는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상기시켜준다. *학습 공과*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위엄을 ...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글을 읽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해 보라: 당신은 하나님의 위엄을 어디에서 발견하는가?

반원 중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 그리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에게 부여하신 위치에 감사하는 마침 기도를 드리도록 하라.

[끝]

제 3 과	아름다운 인생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시편 16 편</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시편 16 편</p>	<p>학습주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p> <p>탐구질문 하나님은 어떤 좋은 것들을 나에게 공급해 주셨는가?</p> <p>학습목표 나는 왜 하나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지를 발견한다.</p>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어떤 성경 학자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까이 갈 때에 시편 16편을 반복했다고 주장한다. 이 시편의 주제는 신실한 신자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공급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다. 우리는 과거에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경배할 뿐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높이 올려드리는 노래이다.

신약에 나오는 시편 16편의 인용들

사도행전 2:25-28, 31

본문 해석

배경: 표제

이 시편의 위에 적혀 있는 표제는 “다윗의 믹담”이다. “믹담”이란 용어는 시편 56-60편에도 등장하는데 그 의미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 단어가 “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마틴 루터(1483-1546) 포함한 어떤 학자들은 이 용어가 몇몇 시편을 수식하면서 “귀중한” 또는 “보석과 같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믿는다.^{vi} 의심할 나위없이, 이 여섯 편의 시편들은 모두 소중한 진리를 담고 있다.

우리는 또한 “다윗의”라는 구절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vii} 반드시 다윗이 저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이 시편이 다윗의 손에 의해 저작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윗이 자신이 설교한 성전에서 부를 시편들 중의 하나로 이 시가 지어지도록 후원했을 수도 있다. 또는 먼 후대의 사람이 다윗 왕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지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표제들의 의미에 대해서 독단적인 주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뢰의 기원 (16:1-2)

16:1. 시편 기자는 보호에 대한 짧은 기원 또는 요청으로 이 시를 시작했다. 그가 실제 위기나 직접적인 위협 가운데 있었는가? 어떤 해석가들은 정말로 심각하고 위급한 문제 가운데 시편이 기록되었다고 보며, 이러한 이유로 이 시를 애도의 시에 넣기도 한다. (4과를 참고하라) 반면에, 다른 이들은 이 시편의 곳곳에 감사가 배어 있으므로 그러한 심각한 문제 속에 시편 기자가 처해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이 기도는 궁극적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편 기자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다.

16:2. 시편 기자는 짧은 믿음과 간증의 진술을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신뢰를 역설한다. 이 시편의 핵심 의미는 하나님이 결코 믿음의 사람을 저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일관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한다.

다른 신은 없다 (16:3-4)

16:3. 누군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속하여 절친한 친구가 될 것이다. 그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신실한 성도들은 그들 가운데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성취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 공동체 안에 속한 각 개개인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 지는 것이다.

16:4.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성에 맞서며, 많은 거짓된 신들을 섬겼다. 이방인들의 관행이 때로 어떤 면에서는 설득력 있고, 심지어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경배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들이 거짓이기 때문이다.

“피의 전제” 또는 신에게 술을 바치는 행위는 고대 이방인들의 풍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히 많은 종교들이 피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다. 피가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역사상 다양한 종교적 의식 속에서 피의 사용은 보편적인 것이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피를 마시는 행위는 생명을 부여하는 주술적인 약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사악한 관행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는 거짓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들과 관련된 의식에 결코 참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분깃의 축복 (16:5-6)

16:5. 5-6절에 사용된 언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건을 기억나게 한다. 그 땅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각각 “분깃”으로 나누어져 후대의 사람들에게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다양한 지파와 부족, 그리고 가족들은 그들이 상속한 땅을 경작했으며,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로 그들의 가족의 생계를 이어갔다.

16:6. 이 구절이 주는 이미지가 땅의 분할을 상상케 하지만, 시편 기자는 단순히 땅과 거기로부터 나오는 열매의 축복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 땅의 소산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대표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땅의 축복이라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즐겁고 좋은 것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 (16:7-8)

16:7.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육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심에 감사했을 뿐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지시가 매일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다. 심지어, 고요한 한밤 중에도 믿음의 사람의 심장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다. 시편 1편을 생각해 보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계심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얼굴을 향할 수 있다.

16:8. 일관된 믿음의 초점은 늘 하나님을 향하기 마련이다. 이 유일한 초점이 믿음의 사람에게 정서적 영적 안정감을 준다.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신실한 관계의 기쁨 (16:9-11)

16:9.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안정감을 누렸다. 그는 이 구절에서 그의 마음과 영과 몸이 모두 평강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 놀라운 결과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신실했으며, 하나님 또한 그에게 신실하셨다. 시편을 통해 그의 믿음이 정금처럼 단련되었던 옫과는 달리, 시편 기자는 그 어떤 위기도 없는 믿음의 즐거움을 묘사했다.

16:10. 시편 기자는 이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즐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깨달았다. 구약에서 “스올”이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이다. “구덩이”로도 알려진 이 장소는 지표면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죽은 사람들의 육체를 받는 곳으로 여겨졌다. 땅 속에 매장하는 대신 동굴 또는 절벽이나 산의 전면을 파서 만든 곳에 매장을 하기도 했다 (참고: 막벨라 굴, 창세기 23:17-20; 49:29-33).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생명의 축복이 자신에게 넘쳐 흐름을 믿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16:11.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편 전반에 표현한 몇 가지를 다시 강조 요약한다. 생명과 기쁨, 그리고 즐거움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주어진 선물들이었다. 또한, 결론적으로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에 강력한 설교를 했던 베드로는 (행 2:25-33) 시편 16:8-11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지 몇주 되지 않았던 바로 그 시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베드로는 이 시편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이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증명하였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 이 시편의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했으며, 그 의미가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고 본 것이다.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좋은 축복들에 대해 감사의 간증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많은 “아름다운 기업”을 영적 축복으로 받았다 (시편 16:6).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시편 16:8)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에 대한 승리를 주신다.

핵심 의미

성경적 축복에 대해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17).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온전한 감사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감사할 줄 아는 찬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viii} 이 고전적인 찬송의 가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함이 실제적이며 지속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복을 세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총명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한다. 인생의 풍량을 만날 지라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 자체가 축복이다.

바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수 있노라고 편지를 썼다 (빌 4:12-13).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물질적인 부나 번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시편 기자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의 믿음의 열쇠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임재였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 신뢰하며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고요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무엇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가?” 반원들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도록 하라. (이들의 대답 중에는 건강, 가족, 재정적 안정, 여행, 시간, 친구 등이 포함될 것이다.) 칠판에 대답을 적은 후 질문하라: “이 중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나 됩니까?”
2. 인생의 세부적인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고후 11:24-27를

읽음으로 바울이 처해있던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시편 16편의 저자로 여겨지는 다윗 왕이 경험한 어려운 환경들에 대해 언급하라. (사울 왕에 의한 쫓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잘못된 결정, 대적하는 아들 등)

3. 우리는 빌립보서 4:11의 바울 사도나 시편 16편의 다윗을 통하여 비록 삶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환경과 어려움, 또는 심지어 축복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성경 공부 가이드

4. *학습 공과* 에 나오는 소제목들을 보고, 함께 1-2절을 읽으라.

- (1) 하나님의 보호를 위한 기도 (16:1-2)
- (2) 하나님의 신성의 탁월성 (16:3-4)
- (3)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에 대한 감사 (16:5-8)
- (4)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16:9-11)

다윗은 이 시편을 위대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 또는 보전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였음을 설명하라. 다윗은 곧 바로 하나님이 피난처, 주님, 그리고 공급자가 되심을 인정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다.

5. 한 학생으로 3-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라. 개요의 두 번째 요약을 보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라:

- 이 두 절에서 무엇이 서로 대조되는가?
- 시편 기자는 어떠한 이방인의 관행을 거부했는가? (이 부분에서 *학습 공과* 의 내용을 참고하거나, *인도자 지침서* 의 "성경 주해" 부분을 참고하여 설명하라.)
- 당신에게 시편 기자의 선언이 왜 중요한가?

6. 개요의 세 번째를 참고하고 5-8절의 말씀을 크게 읽으라. 각각의 구절의 의미와 중요성을 *학습 공과* 와 *인도자 지침서* 의 "성경 주해"를 참고하여 설명하라.

7. 9절의 첫 단어인 "이러므로"는 앞의 문장인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시편 16:8)와 연결됨을 설명하라. 이 마지막 구절들은 하나님에 대한 시편 기자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표현한 것이다. 9-11절의 말씀을 읽은 후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 이 구절들의 단어들 중 어떤 단어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는가?
- "스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학습 공과* 를 참고하라.)
- 10절을 통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어떠한 선포를 했는가?
- 그리스도의 부활의 관점에서 9-11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적용 격려

8. 시편 기자에게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과 기쁨이 있었음을 언급하라.
9. *학습 공과*의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라. 특별히 2번과 4번의 질문에 중점을 두어 이 시편의 적용을 통해 반원들의 삶이 어떻게 더욱 만족스럽고, 더욱 기쁘고, 더욱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지 질문하라.
10. 학생들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는 찬송을 함께 부른 후에 기도로 마치라.

[끝]

제 4 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시편 22 편</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시편 22 편</p>	<p>학습주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p>탐구 질문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에 어디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가?</p> <p>학습목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한 수단을 찾는다.</p>

성경 주해

배경 이해

개인적인 애가로서 이 시편은 시편 전체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시 중에 하나이다. 이 시편의 기도는 망연자실한 현실에 의해 믿음이 흔들리거나 심각한 믿음의 도전을 받은 신자의 실제적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애도의 시편들은 보통 두 가지 다른 형식을 갖는다. 곧 개인적 애도나 공동체적 애도이다. 그 용어가 의미하듯이, 애가는 개인의 곤경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한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슬픔의 표현일 수도 있다. 고대 이스라엘의 개인과 공동체들은 상실과 슬픔과 황폐함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되풀이 되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예배의 시편들에 이러한 종류의 슬픔의 노래들이 포함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놀랄만한 일이 있다면, 시편 전체의 거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시들이 (150 개중에서 49 개) 애가라는 점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이 즐거운 찬송의 선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의 경배의 책은 상실과 위기의 표현들로 가득하다.

거의 예외없이, 개인적 애가와 공동체적 애가 모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에 대한 강한 믿음을 표현했다. 고난의 시기에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애가의 언어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이는 곧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살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다. 우리의 고통의 표현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내려 놓아야 한다. 애도의 시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기도의 표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계실 때에 이 시편의 첫 구절을 인용하신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마 27:46; 막 15:34). 그의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시편 22 편은 예수께서 영과 육으로 느끼고 있었던 감정을 잘 표현해 주었다. 예수께서 그의 인생에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하는 순간에 바로 이 개인적 애가가 그의 마음과 심장에 있었던 것이다.

신약에서의 시편 22 편의 인용들

마태복음 27:43, 46; 마가복음 15:34; 요한복음 19:24; 히브리서 2:12

본문 해석

표제

이전의 과에서 관찰했던 것처럼, 이 시편의 위에 적힌 문구도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시편의 표제는 예배에 이 시편을 사용하는 음악 인도자에게 “아엘렛샤할”이라 불리는 곡조에 따라 이 시편을 부르도록 주문하고 있다. 우리는 이 곡조를 오늘날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불렀는 지를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메모를 통해서 이 시편이 예배 가운데 노래로 불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윗의 시”라는 문구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시편은 다윗 자신에 의해서 쓰였을 수 있다. 또는 훗날에 성전의 예배에서 사용되도록 다윗이 이 시의 창작을 후원했을 수도 있다. 또는, 후대의 작가가 다윗을 기념하여 이 시를 지었을 수도 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표제들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독단적인 해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부르짖음 (22:1-2)

22:1. 고난과 상실의 고통이 시편 기자를 엄습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다. 하나님은 축복과 안전,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다 (3 과를 참고하라). 고난이 닥칠 때에 고난 받는 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며, 축복 또한 가져가셨다고 느낀다.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칠 수 있겠는가?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분명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얻게 된 결론이며, 이 질문을 인용하였다 (마 27:46; 막 15:34). 비록 한 구절도 간신히 내어 뱉었지만, 예수님은 이 시편의 전체를 염두해 두고 계셨다.

22:2.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했다. 그는 주야로 계속해서 응답을 구했다. 하지만, 아무 것도 듣지 못했고,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 (22:3-5)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인간으로부터 멀리 높은 곳에 계신다. 하지만, 상호 관계를 통해, 예배자는 왕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뢰하고, 하나님은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구약의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분의 백성들 편에 종종 계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과거를 되새긴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했던 추억들은 현재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다. 고난 받는 자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이러한 질문이 남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 순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고통에 대한 조롱 (22:6-8)

고통스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현위치를 돌아본다. 그는 선민으로서의 고상한 지위로부터 하찮은 벌레가 된 기분이었다.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은 축복을 낳는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매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분명 무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심각한 논리적 오류는 고통 받던 욕을 향한 세 친구들의 태도에서도 볼 수 있다 (욥 42:7-8; 참고: 눅 13:1-4; 요 9:1-4).

공개적 굴욕과 조롱은 고통받는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구경꾼들은 종종 피해자를 쉽게 비난하곤 한다. 예수님도 거부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대적들의 조롱과 구경꾼들의 비웃음을 들으셨다 (참고: 마 27:39-44; 막 15:29-32; 눅 23:35-39; 요 19:1-3).

단순한 믿음의 고백 (22:9-11)

시편 기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단순한 기본적 진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고백한다. 요약하자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내게 믿음도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외롭고 주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기초적인 것들이 보다 선명해진다. 생명은 소중한 선물이다.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신 분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22:12-18)

시편 기자의 대적들은 가장 힘센 가축이나 사나운 들짐승처럼 그를 공격했다. 그들의 찌르는 듯한 말들은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사자의 날카로운 송곳니처럼 그들 아프게 했다.

시편 기자의 육신에 가해진 깊은 상처는 명백했고 그의 몸을 쇠약하게 했다. 그의 강하고 건장한 체격은 무기력하고 메말라서 겨우 숨만 헐떡이는 앙상한 껍데기만 남았다. 활력은 모두 사라지고, 죽음이 문 앞에 이르렀다.

핍박하는 자들("개들")은 궁지에 몰린 그를 무자비하게 물어 뜯고 괴롭혔다. 그를 공격하고 약하게 한 후에는 그가 가진 것 중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갈취했다. 18 절의 말씀은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빼앗아 누가 그것을 가질 것인가 제비를 뽑았던 사건에서 성취된다 (참고: 마 27:35; 막 15:24; 눅 23:34; 요 19:23-25).

마지막 기도 (22:19-21)

절벽 끝에 몰린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도움을 구합니다. 내 상황은 극단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어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께서도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 이전에 이와 비슷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46).

고통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찬송의 서원 (22:22-31)

22:22-26. 이 시편의 나머지 부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조와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간섭과 자신의 곤경으로부터의 구원을 믿음으로 기대했다. 언젠가 하나님이 자신의 단순한 믿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할 것을 상상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11-13 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확장되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구원받은 시편 기자는 언젠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격려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바로 동일하신 하나님이 억압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다. 이러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최고의 찬송과 영광과 충성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쉽게 피해자를 정죄하는 많은 구경꾼들과는 달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도우신다 (시편 22:24).

22:27-31. 이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알려야 한다.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은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왕국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창세기 12:3).

심지어 장차 있게 될 우리의 "후손"들도 (시편 22:30) 이 하나님을 알 것이며 위기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발자취는 계속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그분의 구원을 목격할 것이다.

핵심 의미

애도의 시편들, 그 중에서도 시편 22 편은 예수께서 가장 외롭고 힘든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실 때에 자신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표현하는 방편이 되었다.

구약 학자 번하드 앤더슨(Bernhard W. Anderson)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 애도의 시편들을 고통 중에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시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에도 해당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테스트의 시간이다.^{ix} 하지만, 앤더슨의 관찰에 의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에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애도의 시편들은 진정 "그분의 부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러지는 강력한 찬송의 표현"이 된다.^x 앤더슨은 애도의 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드리는 찬송, 또는 하나님의 존재가 가려진 시간에 드리는 찬송이다."^{xi}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애도의 시편들을 익숙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편들은 그분의 갈보리에서의 죽음을 준비해 주었다. 예수님은 겔세마네에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임박한 고통스런 미래로 인해 근심하며, 또 한편으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많은 애도의 시편들을 되뇌었을 것이다. 장차 다가올 고난으로 인해 근심하면서 그 분은

기꺼이 고난을 맞이하려는 생각과 그것을 피하려는 생각 사이에 갈등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확인함에 있었다. 구약의 많은 애도의 시편들에서 발견되듯이, 예수님의 근심은 곧 믿음이 되고, 그의 상실감은 소망으로 바뀌었으며, 심한 고통은 영원한 찬송 속에 흡수되었다.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분의 아들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힘겹게 이스라엘의 믿음의 애가를 내뱉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1)

하나님의 존재, 또는 인간의 실패와 상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해 내가 연구와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이것이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은 이해하신다.

개인적 간증을 나누자면, 나는 우리가 애가를 부르는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곧 “회중”의 중요한 역할을 믿는다 (22:22, 25; 참고: 22:3). 우리 첫째 아들이 교통 사고로 죽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음을 알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다.^{xii}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현재 지역사회나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어디 계신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나요?”라고 질문할 만한 사건들이 있는가? (가능한 대답들: 자연 재해, 인권 학대, 인신매매, 테러나 폭력, 무죄한 사람들이 해를 당하는 일들 등.)
2.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되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함께 생각해 보자. 예수님 또는 그 분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라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다면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가능한 대답들: 예수님 탄생시 부모들이,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죽였을 때,

예수께서 열 두 살에 성전에 계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겐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심판과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 처형시에.)

3.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었지만, 성육신 기간 중에는 인간이 겪는 슬픔과 감정을 모두 경험하셨다.

성경 공부 가이드

4. 마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누군가 마태복음 27:46 을 읽도록 하라.) 자, 이제 오늘의 성경 본문인 시편 22:1 을 읽어 보자. 다음과 같이 말하라: "1 세기에는 시의 첫 구절을 인용함으로 나머지 시 전체를 의미하곤 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오늘날 이메일을 할 때에 메시지의 주제를 간략하게 제목란에 적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과 시편 기자가 사용한 단어들은 분명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감정이 집약된 표현이다. 예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편 22 편을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이 시편 전체의 내용을 살펴봄으로 보다 선명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5. 누군가 시편 22:1-2 을 읽게 한 후 질문하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접근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겠는가?" (가능한 대답들: 그는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접근했다; 정직한 질문과 감정으로 다가갔다.) 이렇게 진술하라: 만일 예수님과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
6. 누군가 시편 22:3-11 을 읽게 한 후, 시편 기자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을 함께 찾아 보도록 하라 (참고: 22:2, 5, 6, 7, 8). 다음과 같이 말하라: "다윗의 생각이 시편을 통해 바뀌었음을 볼 수 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것을 기억했다. 다윗은 곧 개인적 예배로 반응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이전에 도우셨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과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7. 12-21 절에서 다윗은 그의 극심한 고통을 언급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계시는 동안에 왜 이 시편을 기억하셨는 지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라. 누군가 시편 22:12-21 을 읽게 하라. (*학습 공과* 를 참고하여 짐승에 관해 언급한 것을 설명해주라.) 질문하라: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특별히 이 시편을 기억하셨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배신당하고, 찢기고, 남용되었다고 느꼈다; 다윗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 참고: 22:20-21.)
8.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배의 언어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보라. 누군가 시편 22:22-31 을 읽게 한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라. “하나님은 다윗과 예수께서 고통의 한 가운데서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들을 찾아보라.” (대답하도록 격려하라.)

적용 격려

9.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라:

-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함
- 하나님 앞에 정직함
-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도움과 약속을 기억함.
-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음.
-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
- 하나님을 예배함.

10. *학습 공과*에서 “이 과의 적용”을 보고 요약하라.

[끝]

제 5 과	주께 말기라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시편 31 편</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시편 31 편</p>	<p>학습주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과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p> <p>탐구질문 우리가 주님 외에 누구를 의지하겠는가?</p> <p>학습목표 시편 기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술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p>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시편 31 편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시간과 예배 가운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이 시편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다. 초대 교회는 시편 22 편, 69 편과 함께 이 시편을 예수님의 수난에 대한 주석으로 사용하였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편 31 편을 읽으면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시편 31 편은 고난에 처한 한 개인이 도움을 청하는 기도이다. 여기에는 거짓된 고소를 당한 자가 정당한 변호를 구하는 기도가 포함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비유한다: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 “나의 반석” (시편 31:2-3).

이 시편의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내용으로 판단할 때에 이 시편은 악한 대적들에 의해서 고통과 소외를 경험한 주의 종의 기도임에 분명하다. (시편 31:15-16). 이 시편에 사용된 언어와 경험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험과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면, 시편 31:11 을 예레미야 20:18 과, 시편 31:13 을 예레미야 20:10 과, 그리고 시편 31:18 을 예레미야 17:18 과 비교해 보라. 선지자 예레미야와

메시아는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종의 모델을 잘 보여준다. 베드로전서 4:19 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격려한다.

시편 31 편의 기자는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의 대적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덫을 놓았다. 이 대적들은 가치 없는 허영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시편 기자의 자유를 박탈하였다. 또한, 이들로 인해서 시편 기자는 수치심을 경험해야 했다. 그에게 시간은 너무도 촉박했다. 빨리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다. 이러한 심한 고통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이 시편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고통에서 확신으로의 여정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1-8 절의 여정을 관찰해 보고, 9-24 절의 여정을 또한 살펴보자.

신약에서의 시편 31 편의 인용

누가복음 23:46

본문 해석

도움을 구하는 간청과 하나님의 응답 (31:1-8)

31:1. 시편 기자에게는 오직 하나의 피난처만 있었다.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는 하나님이 오직 그 분만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1 절은 아름다운 믿음의 선언이다. 시편 71 편 또한 시편 31:1-3 의 말씀과 유사하게 시작됨을 주목하라.

31:2.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구한다. 히브리어의 평행 구조를 통해 독자들은 “내게 귀를 기울여”라는 표현이 “속히 건지시고”의 의미와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피난처되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다.

31:3-5a. 3-5a절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이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했다. 그는 하나님을 피신처로 삼았다.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신을 선포한다. 두 개의 인칭 대명사, 곧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고 있는 시편 기자의 믿음을 강조한다.

4 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대적들은 믿는 자들을 속임수로 함정에 빠뜨리려 함을 볼 수 있다. 신자는 마치 새처럼 표현되었다. 하지만, 주님은 그물로부터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남몰래

그물을 놓았던 자들은 공개적으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신실한 자들이 대적에 의해서 함정에 빠질 때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신다.

5 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긴다. 믿음은 언제나 기도의 근거가 된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었다(눅 23:46). 주님은 5 절의 후반부는 인용하지 않으셨다.

“나를 속량하셨나이다”라는 표현은 매우 흥미롭다. “속량”은 속죄의 의미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시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는 어떤 문제로부터의 구출이나 해방을 의미한다. 시편 130:8 은 예외에 해당한다. 시편 31 에서 이 문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 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대한 표현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의 말씀을 죽기 전에 남겼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기도로 사용한 것이다. 여기에는 폴리갑, 후스의 버나드, 프라하의 제롬, 마틴 루터 등이 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선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이나 물질적인 이득이 아니라, 오직 영인 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의 손에 드렸다. 주님의 손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안전하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안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살아 있는 동안에 평강을 주실 뿐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광스러운 안식을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든든한 근거가 된다.

이 시편은 모범적인 기도로 불린다. 시작부터 끝까지 확신에 찬 기도이다.

시편 31 편은 그리스도인의 묵상과 기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3:46 에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던 예수께서 이 시편의 5 절을 인용하셨기 때문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 편은 시편 22 편이나 69 편과 함께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수난에 대한 회고록으로 사용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31 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했다. 따라서, 이 시편의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

31:5b-8. 본문의 내용이 갑자기 변한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움을 주신 것이다. 시편 기자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노래를 드린다. 그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그의 송사를 들으시고 재판을 하셨으며,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6 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한 미움을 표현했다. 시편 기자는 우상 숭배자들의 압력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는 우상숭배자들의 미신적인 행위를 “허탄한 거짓”이라고 여겼다. 믿음의 사람들은 재물을 신으로 삼는 자들을 피해야 한다.

거룩한 자들은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 자들은 선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착한 악인이란 있을 수 없다!

7-8 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에 대해 감사를 표현했다. 7 절의 “보시고”와 8 절의 “가두지 아니하셨고”는 하나님의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또한, “고난”과 (31:7) “넓은 곳”은 (31:8)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항상 인자하심을(신실하신 사랑, 헤세드) 보이신다.

비록 대적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결코 대적에게 우리를 넘겨 주지 않으신다(31:8).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긴급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늘 은혜를 베푸신다.

버림받은 사람 (31:9-24)

버림받은 사람은 고독하다. 고통받는 자는 슬픔 가운데 점점 더 깊은 감정의 늪에 빠져서 절망과(31:12) 두려움(31:13)을 느낀다. 미움 가운데 버림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31:9.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처를 모두 드러내며 자신의 외로움을 글로 표현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자비를 구한다. 눈이 “쇠하였다”는 표현은 시편 6:7 에서도 발견된다.

31:10. 시편 기자는 하루 하루를 슬픔의 탄식 가운데 보낸다. 그는 절망의 구렁이에서 자신의 날들을 보냈다. 슬픔은 그의 존재의 본질을 앗아갔다. 대적들은 그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그를 위해 예비된 무덤을 판 것이다.

31:11. 시편 기자의 암울한 상황은 그의 대적들의 귀에는 음악과 같았다. 그들은 그의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다. 시편 기자는 심지어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다.

31:12. 사람들은 은혜를 쉽게 잊곤 한다. 명성도 잠시 뿐이다. 오늘 명성을 가진 사람들도 내일은 쉽게 잊혀질 수 있다.

31:13. 악한 입술은 그들의 먹잇감 앞에서 거짓을 토해낸다. 악한 자들은 서로 한 마음으로 결탁한다. 대적들은 시편 기자의 피를 보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20:10 은 예레미야가 시편 31:13 의 말씀으로 괴로움을 당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악한 인간들과 그들의 저주를 알고 있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주제였다 (참고: 예레미야 6:25, 20:3, 10; 46:5; 49:29; 애가 2:22).

31:14. 이 절의 말씀은 믿음의 기도로의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 시편 기자는 그의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굳게 지키고 있는 한 아무리 전쟁이 힘들어진다 해도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나”와 “주”는 강조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어 이 절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준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했다.

31:15. 핍박을 피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구원이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다른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주장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를 지키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감당할 수 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었기에 대적들의 손에서 주님이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

5 절과 15 절은 죽은 자들 뿐 아니라, 산 자들을 위한 말씀이다. 15 절을 통해 5 절의 실제적인 의미가 표현되었다. 평생 동안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죽음의 순간에 결코 이런 고백을 할수 없다. 예수께서 이 고백을 하셨을 때에, 그것은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삶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라고 볼수 있다.

31:16.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비취기에 세상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이 “주의 사랑하심으로” 인해 비취게 된다. 이 구절은 민수기 6:25의 제사장적 축복의 기도를 생각나게 한다.

31:17.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스올”은 죽은 자들을 위한 장소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죽음을 바랬던 그의 적들이 죽기를 소망했다. 문자적으로, 본문은 “악인들이” 스올에서 잠잠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다. 시편 기자는 18 절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죽음으로 인해 침묵하게 될 것을 기대했다.

31:18. 그들이 한 말이 아무 것도 아님이 증명되도록 거짓말하는 자들을 침묵케 하소서!

31:19-20.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했다. 이제 마지막 구절들에서(31:19-24), 시편 기자는 신실하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다.

믿음의 삶은 정말로 기적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측량할 수 없다. 하늘의 자비는 하늘의 창고에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베푸신 놀라운 일들의 예를 흔히 볼수 있다.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신다. “피하는 자”와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두 개의 비유들이다.

31:21. 하나님이 그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신다.

31:22.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계속적인 실수를 깨우쳐 준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에도 또한,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서툴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놀라서”라는 단어는 시편 기자의 두려움을 의미한다. 시편 116:11 에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

31:23-24. 마지막 구절의 말씀들은 독자로 하여금 삶과 죽음 가운데 사랑과 능력과 담대함을 발견하도록 격려한다. 이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연약함과 의존, 그리고 신뢰의 표현이다. 고통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시편 기자는 23 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각오심을 경고한다. “성도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두려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담대함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 용기있는 자들에게 승리가 온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의 시간에 당신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하시기에 “담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도움의 확신이 있다. 고통의 끝에 대한 약속이나,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도 없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선포한다.

핵심 의미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험난한 경험을 하게 된다. 시편 31 편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임을 가르쳐준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무엇을 의지하는가?—돈, 친구, 가족? 단순한 문제들은 단순한 방법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때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보호로만 이겨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야 하는데 특히 그 분이 어려움을 이겨내신 방법들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은혜로 그의 시련을 맞으셨다고 말하지 말라. 그 분은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경을 이기셨는지를 보고, 우리의 삶의 위기도 이겨내야 한다.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학습 공과*의 “주님 외에 누구를 의지하겠는가?”라는 글을 읽고, 요약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마지막에 있는 질문들에 대해 논의하게 하라.
2. 시편 31 편에서 시편 기자가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지적하라.

성경 공부 가이드

3. 다음과 같이 말하라: “시편 31 편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볼 수 있다. 그가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처음 여덟 구절을 읽으면서 시편 기자의 감정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나 문구들을 찾아보라. 또한, 시편 기자가 위기의 순간에 했던 말이나 행동을 주목해보라.” 누군가에게 시편 31:1-8 을 읽게 한 후 질문하라: “시편 기자의 감정 상태는 어떠했는가? 그 결과 그는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
4. 다음과 같이 말하라: “우리는 전에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공통적인 상황이 있다면 무엇인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순서대로 열 가지를 나열해 보자. (예들: 재정적인 문제, 실직, 사랑하는 이의 죽음,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남, 이혼 또는 깨어진 관계, 사람들의 비방, 자녀 문제 등)
5. 다음과 같이 말하라: 9-13 절을 읽고 시편 기자를 슬프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자. 누군가 이 구절을 읽도록 한 후 질문하라: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가?” (가능한 대답들: 건강의 문제, 질병 또는 몸이 연약해짐, 다른 사람들의 비방, 겉모습이 너무나 흉칙하게 변함, 친구들에게서 잊혀짐, 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함)

6. 질문하라: “당신이나 당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함께 나누고 토론하라.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거나 또는 반응하도록 유혹을 받았는가?”
7. 다음과 같이 말하라: “시편 기자는 우리와 똑같은 일들을 경험했다. 우리는 그가 당한 어려움과 그에 대한 반응을 보았다. 이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살펴보자.” 누군가로 19-24 절을 읽게 한후 질문하라: “시편 기자에게 일어난 일을 당신 자신의 말로 요약해 보라.”

적용 격려

8. 누군가에게 *학습 공과* 의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라는 글을 읽도록 부탁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그 분을 알기를 원하고, 삶의 모든 면에서 그 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신다. 당신이 경험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을 놀라게 만들수는 없다. 시련을 겪을 때에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 “만일 시련을 겪으면”이 아니라, “시련을 겪을 때”이다. 예수님을 알고, 그 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갈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8:28 의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말씀을 읽은 후 질문하라: “시련을 겪을 때에 당신은 누구를 의지하는가?”

[끝]

제 6 과	용서의 기쁨
<p data-bbox="293 464 415 537">핵심본문 시편 32 편</p> <p data-bbox="293 646 415 720">배경 시편 32 편</p>	<p data-bbox="540 411 1370 531">학습주제 인생의 기쁨은 죄를 숨기거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보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용서를 경험할 때 얻게 된다.</p> <p data-bbox="540 577 1409 697">탐구질문 용서의 유익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 받기를 회피하는가?</p> <p data-bbox="540 743 1333 863">학습목표 잘못을 숨기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을 대조한다.</p>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시편 32편은 용서의 기쁨을 표현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조화는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이 바로 시편의 지속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시편 32편은 참회의 시편들(시편 6; 32; 38; 51; 102; 130; 143) 중에서 두번째에 해당한다. 이 시편은 회개를 가르친다. 이와 비슷한 교훈이 잠언 28:13에서 제시되었다. 시편 기자의 경험이 교훈의 근거가 된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고통을 낳지만, 고백은 용서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다.

이 시편은 감사 기도의 형태를 가진다. 그 전형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다: 고통에 대한 서술, 하나님께 간구, 구원.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개적인 간증으로 제시했다. 그의 기도는 참회를 강조한다.

이 시편의 연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후기에 해당하며,^{xiii} 예배가 더욱 중요시 되던 시기에 교훈적인 역할을 했다. 참회의 기도는 바벨론 유수 이후의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였다(참고: 에스라 9; 느헤미야 9; 다니엘 9).

사도 바울은 로마서 4:7-8에서 시편 32:1-2을 인용하였다. 초대 교회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용서의 관점에서 시편을 읽곤했다.

용서받은 죄인은 시편 전체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시편은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도 더 많은 축복의 말씀을 담고 있다. 시편의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한 길과 방법대로 살아간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 시편 32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의 축복된 상태를 강조한다. 이러한 축복은 1-2절에 걸쳐 세 가지 다른 병행된 구절에서 발견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것들이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다른 모든 축복의 말씀들은 바로 이 구절들이 묘사하고 있는 용서의 축복에서 시작된다.

이 시편은 죄의 고백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길은 오직 고백 뿐이다. 따라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인으로 서야만 한다.

회개와 반복되는 죄의 고백은 자칫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습관적인 죄의 고백은 무의미하며 피상적일 뿐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이해가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된다.

신약에서의 시편 32 편의 인용

로마서 4:7-8

본문 해석

죄의 용서 (32:1-2)

시편은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된다. “복이 있도다”라는 축복의 선포는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의 전통과 연관된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 또한 의인의 축복을 선포한다.

용서의 결과는 행복이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죄를 옮겨 제거하셨다. 죄는 또한 “가려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여전히 존재하는 무언가를 숨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다시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법을 어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복이 법을 지키므로 인해 온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는 오직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죄의 고백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수반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죄의 고백 자체가 죄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이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인 것이다. 죄를 고백하는 자는 자신의 죄의 고백이 스스로를 의롭게 한다든지, 죄를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기만이다.

로마서 4:7-8에서 바울은 죄의 고백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임을 강조했다.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로마서 4:8) 말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의 노력에 결과가 아니라, 선물이다. 이러한 개념은 창세기 15:6에서도 발견된다.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변개할 수 없는 죄의 용서는 절망적인 죄인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는다. “사함”(시편 32:1)이란 누군가의 어깨에서 짐을 내려 놓듯이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에 의해 죄가 “가려지고” 죄의 더러움이 영원히 숨겨진 것이다. 보기 흉하고 추악한 죄는 이제 영원히 제거된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속죄 또는 죄의 얼룩이 완전히 가려지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이다. 이 구절의 말씀들은 회개한 죄인이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1-2절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불순종을 묘사하기 위해 “허물,” “죄,” “간사함,” “정죄” 등 여러 가지 단어들 사용되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용서에는 거짓됨이 있을 수 없다. 자신의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된다.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는 축복을 가져오지 못한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거짓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의미한다.

사면초가에서 벗어나다 (32:3-5)

이 구절들은 시편 기자 자신의 경험을 묘사한다. 시편 기자의 완악함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보편적인 특성이다. 그렇지 않은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 불행해진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침묵할 때에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 죄로 인해 그의 육체적 생명이 점점 쇠약해졌다. 죄는 그의 힘과 활력을 모두 앗아갔다.

시편 기자는 형벌의 행위로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짓누르고 있다고 확신했다.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지를 상상해 보라.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짓누를 수도 있다. 시편 기자는 삶의 모든 기쁨과 활력을 상실했다.

결국,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고백되지 않은 죄로

인해 악화되었던 그의 건강은 이제 고백을 통해 회복되었다. 깨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으며, 결국 용서함을 받았다. 바이러스와 같은 죄의 영향력은 이제 제거되었다.

시편 기자는 죄의 고백이 반드시 하나님께 이루어져야 함을 선포했다. 마음 속으로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을 구하는 것은 죄의 고백이 아니다. 절대자 앞에서 침묵이 깨어져야만 한다.^{xiv} 시편 기자는 이 점을 세 가지 다른 병행 구절을 통해 강조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이는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1:8-10은 우리가 죄 없다고 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준다.

시편 기자는 침묵과 말하는 것을 대조하였다. 곧,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시편 32:3)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32:5)이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백되어지지 않은 그 잘못이 그 사람의 한 부분이 된다.^{xv} 만일 잘못을 행한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침묵은 완악한 교만의 상징이다. 이러한 침묵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낚는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에게 죄의 고백은 기도의 영역에 속한다.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죄의 고백도 포함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참회로 시작해야만 한다.

유일한 피난처 (32:6-7)

오직 하나님 안에만 유일한 피난처가 있다. 하나님은 의인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피난처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함께 구원의 기쁨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

시편 기자는 고백되지 않은 죄로부터 놓임받고, 하나님의 용서와 육체적인 위안을 얻게 되었다. 그는 이제 회중들에게 하나님께로 다가 가도록 조언을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격려가 된다.

고통은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 차고 넘치는 파괴적인 홍수와도 같다.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은 차오르는 물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견고한 뚝이 되셔서 물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시편 기자는 소위 말하는 신명기적인 신학을 충실히 믿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죄인은 형벌을 받는다는 믿음이다. 시편 기자에게 죄는 항상 고통의 원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인 신념은 욕기를 통해 도전을 받는다.

배워야 할 교훈 (32:8-9)

8-9절의 말씀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회중들을 가르치는 시편 기자의 말인가? 아니면,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어떤 경우가 되든, 이 구절의 말씀들은 특별히 젊은이들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 보인다. 시편 기자는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인생은 결국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제어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시편 기자는 고집스런 노새와 굴레를 씌우지 않은 야생마의 예화를 통해 젊은이들이 가진 에너지를 표현했다. 이들은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을 배워야만 한다.

기쁨으로의 초청 (32:10-11)

시편 기자는 또한 청자와 독자들에게 악한 자들이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반면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늘 함께 하신다. 시편은 회중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 할지어다”라는 초청으로 끝을 맺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 즐거이 외치게 된다.

핵심 의미

친구들과 인간 피라미드를 만들며 게임을 할 때에 밑바닥에서 어려움을 참아야 했던 기억이 있는가? 마침내, 가장 위에 있던 친구가 내려 올 때에 비로소 숨을 내쉬면서 갑작스런 안도를 경험한 기억이 있는가?

그 누구도 가장 밑바닥에서 계속 있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가 바로 이와 같다. 가장 밑바닥에서 짓눌리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무거운 것이 갑자기 들려 옮겨지는 것과 같다. 하지만, 죄와 하나님, 그리고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무거운 것을 우리로부터 옮기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거운 짐 아래 깔려 고통받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다. 육적인 숨막힘은 싫어하면서 왜 영적인 숨막힘은 싫어하지 않는가?

인간 피라미드의 밑에 깔려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빨리 내려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빨리 내려와” 라고 소리를 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죄를 향하여 “빨리 내려와” 라고 소리 지르는 것과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그 죄를 제거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비로소 죄의 집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죄를 향해 내려 오라고 말하기까지 그것은 계속해서 당신을 짓누를 것임을 기억하라.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칠판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거짓말,” 그리고 “숨김” 이라고 쓴 후 질문하라: “이 단어들이나 문구들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인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들) “최근에 미국에서 잘 알려진 한 대학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범죄가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은닉하려 했던 정말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였다.
2. “성경의 예를 보자” 누군가에게 창세기 3:9-14 를 읽게 한 후 질문하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는가?” (토론하도록 격려하라.)
3. 이번 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기 원하시는 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 과의 제목은 “용서의 기쁨”이다. 시편 32 편을 보자.

성경 공부 가이드

4. 누군가로 시편 32:1-2 을 읽도록 한 후 말하라: “시편 기자는 이 구절에서 시편 전체의 주제를 알려준다. 곧,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다음에 제시된 요약을 통해 죄와 용서에 대해 말해 보자.”
 - I. 죄란 무엇인가?
 - II.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가?
 - III. 용서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5. “1-5 절에는 죄에 대한 여러 다른 단어들이 나온다. 이 단어들을 주의 깊게 들어보라.” 누군가에게 시편 32:1-5 을 읽도록 부탁하라. “어떤 단어들을 발견했는가?” 자신이 발견한 단어들을 말해보도록 한 후 각각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라.
 - 죄(Sin):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 허물(Transgression): 개인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 죄악(Iniquity):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타락

I. 죄란 무엇인가? “죄는 오늘날 그리 유행하는 단어가 아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실수했다’라고 말하지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좀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죄라는 단어가 너무 심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좋은 면만을 생각하기 원하고,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로마서 3:23 을 읽도록 하라.
6. II.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가? “시편 기자가 처음에 자신의 죄에 대해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자신의 죄를 감추었고 그 결과는 비참했다). “그리고 난 후 그는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 지 신학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에서 이야기해보자.” “신학적으로는 로마서 5:8 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누군가에게 로마서 5:8 을 읽도록 한 후 계속하라. “비록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분이 주시는 용서의 선물을 받아야만 한다.” 누군가에게 로마서 10:9-10을 읽게 한 후 질문하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인 죄의 용서함을 받는가?” (당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반원들에게도 개인적인 용서의 경험을 나누어 보도록 하라.) 누군가로 요한일서 1:9을 읽도록 하라.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이 구절의 말씀으로 토론하라. “얼마나 자주 죄를 고백해야 하는가? 왜 죄를 고백해야 하는가?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후에 어떻게 느끼는가?” (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라.)

7. III. 용서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시편 32:3-4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의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누군가에게 다시 이 말씀을 읽도록 부탁하라.) “우리는 시편 기자가 죄를 숨겼을 때 느꼈던 감정과 우리 자신이 비참하게 느꼈던 때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한 일을 알고 계신다. 우리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뿐이다. 5-7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에 일어난 변화를 나누었다.” 누군가에게 시편 32:5-7을 읽도록 한 후 질문하라.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예를 들면, 구원하시고 보호하심) 시편 기자는 죄를 고백 한 후에 너무나 기쁨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음에 주목하라. 32:8-11을 읽으라.

적용하도록 격려하기

8. “다른 사람들에게 죄사함으로 인한 기쁨에 관해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에 무엇이 있는가?” (가능한 대답들: 그들로 먼저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보게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예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항상 지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불신자들과 친구가 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도 나누라.)

[끝]

제 7 과	생명을 갈망하는 것과 그 생명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시편 34 편</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시편 34 편</p>	<p>학습주제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신실함은 참된 생명의 근원이다.</p> <p>탐구질문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고려해볼 때, 참 생명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p> <p>학습목표 참 생명의 근원을 발견하고, 내 삶을 위한 공급의 근원을 재확인 한다.</p>

성경 주해

배경이해

시편 34 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22 개 문자들로 각 행의 첫 글자를 만들었다. 시편 25 편도 같은 형식을 따르고 있다. 두 시편 모두 히브리어 “waw”는 생략했다. 게다가, 시편 34 편 마지막 구절은 알파벳 첫 글자로 행을 시작하는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서 22 개의 절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시편 34 편은 신학적으로 감사 기도에 대한 교훈을 제공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제도화되고 정기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써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시인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자신의 권위를 강화시키면서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록했다.

시편 34 편을 인용한 신약 말씀

베드로 전서 3:10-12; 7:17, 21

본문 해석

찬양의 기도(34:1-3)

34:1. 이 구절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라”라는 시인의 결의와 함께 시작한다. 시인은 창조의 찬미를 위한 하나님의 단독적인 일하심을 깨달았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시인은 목소리로 찬양을 표현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선한 생각과 입술의 선한 말을 지키기 위해 부름받았다.

34:2-3. 더욱이, 시인은 회중 안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갈망했다. “곤고한 자”라고 표현된 회중은 듣고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분을 찬양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초청하셨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이런 사랑은 입술과 마음,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 시인은 사랑할만한 어떤 것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권고, 설명, 축복 (34:4-11)

34:4 시인은 4 절에서 여호와에 의한 구원을 기록했다. 이 구절은 이 노래가 개인적인 감사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시인은 이 한 구절 안에 그의 고통,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과 그 분의 구원을 강조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원인들을 제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그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한 우리의 소극적 태도는 영광의 하나님을 가로챈다.

34:5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빛을 경험하는 것이다. 영적 확신은 주님께 돌아서는 일에 대한 선물이다. 시인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의로운 자(34:15, 17, 19, 21), 비천한 자(34:6),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34:8, 22). 기도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다.

5-10 절은 이 시편의 영적 만족감으로 묘사될 수 있다. 한 사람이 회중 앞에 서 있다. 그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고통당했다. 그는 주님을 불렀고, 주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일하신다는 예표가 된다.

시인은 주님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선포했다(34:7). 시인은 아마도 열왕기하 6:14-17 절(엘리사의 이야기)을 마음에 떠올렸을 것이다.

34:6. 시인은 다시 스스로 경험한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주님을 부르짖을 때, 그는 안심하게 되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지를 표현하기 위해 “온갖 재난에서부터”라는 과장법을 사용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삶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없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도는 삶의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다.

34:8 이 구절은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에서 “맛보다”라는 표현은 경험에 의해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 보상,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화평을 추구하고, 기도를 경험하는 일을 실제로 해보아야 한다. 스스로 선하심을 맛보지 않고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는 없다. 우리는 믿음을 영혼의 입맛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34:9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을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8 절에 있는 “맛보다”라는 표현과 비슷하다. 우리는 우리가 즐기는 것을 “맛본다.”

34:10.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맛보는” 자는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34:11. 11 절과 12 절에서 시인은 단순히 회중 중 한 사람으로써가 아니라 선생으로써 말했다.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초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생으로 행동하는 시인은 “자녀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기를 권면했다.

여호와를 경외함(34:12-14)

이 부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명을 갈망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답이다. 시인은 이 답을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피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좇는 것으로 적용시켰다. 암시되는 결과는 만족을 주는 생명이다. 이런 생각은 잠언서의 특징이기도 하다(잠 1:7, 8, 29; 3:1-2; 4:1).

34:12.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갈망한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은 삶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은 삶의 비결을 배우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자만이 인생의 참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를 배운다.

34:13-14. 12 절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책망의 형태로 되어있다. 시인은 그의 말을 듣고 읽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가르쳤다. 특별히 그들은 속임을 피해야 한다. 더욱이 시인은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특별히 그들은 평화로운 관계를 이끌 수 있는 행동을 추구해야 한다.

34:13. 혀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부위다. 그래서 반드시 신중하게 지켜져야 한다. 뱀과 다르게 사람들은 자신에게 독을 주지 않으면서 독을 뿌릴 수 없다. 속임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드시 방지되어야 한다.

34:14. 우리는 악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 당신과 모든 유혹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선을 행하는 것은 실용적이고 활동적이며 효과적인 행동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피할 것이다. 우리는 단지 화평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과 같은 화평의 증진을 위한 열정을 나타내야 한다. 화평보다 우리의 행복을 확신시켜줄 수 있는 것은 없다. 투쟁은 치명적인 암과 같이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열정을 일으킨다. 우리는 추구하고, 찾아 나서며, 간절한 열망과 함께 화평해야 한다. 화평을 추구할 때 화평은 돌아오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는 기도와 구원 (34:15-22)

이 구절들은 신적 응징을 다루고 있다. 신적 응징의 주제 —주님이 악한 행동을 갚으시는 방법—는 히브리인의 지혜서 안에 있는 중요한 주제다. 주님은 악한 행동을 하는 자를 대적하신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그들에 대한 모든 기억을 제거하실 것이다.

하지만 주님의 눈과 귀는 의로운 자들의 필요에 반응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 가까이에서 계신다. 그분은 깊이 뉘우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시인이 얼마나 처절하게 느꼈는지에 관계없이, 그는 주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을 신뢰했다. 사실 시인은 주님이 온전치 못한 그의 몸을 보존하실 것을 선포했다. 주님은 의로운 자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 물으실 것이다.

34:15. 주님은 부드러운 돌보심으로 의로운 자들을 주의하신다. 그들은 주님께 너무나 귀중하여 주님은 그의 눈을 그들에게서 떼실 수 없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모른체 하실 수 없으시다. 엄마가 아픈 아이를 듣는 것처럼 주님은 그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주님은 그의 자녀들의 목소리에 천천히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34:16. 게다가 주님은 죄인의 행동에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그의 눈과 귀는 악인에게 응하지 않으신다. 경건치 못한 자들은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영화는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잊혀질 것이다.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34:17. 의로운 자들이 죄, 유혹, 슬픔 그리고 삶의 보호아래 고통받을 때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다. 참으로 주님은 가장 먼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삶의 투쟁이 없을 수는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4:18. 마음이 상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 분이 멀리 계신다고 느낄 수 있다. 죄인이 스스로를 정죄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구원은 회개와 연결되어 있다.

34:19-20. 신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돌본다. 몸은 고통스러워도 실제 자아는 보존된다. 신실한 자들은 그리스도안에서 보존된다.

34:21. 악한 자들은 스스로를 매달기 충분한 밧줄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처벌이 될 것이다.

34:22. 구속받은 자들은 그들을 위해 값을 지불하신 주님께 속했다. 주님은 의로운 자들과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을 구속하신다. 구속받은 자들은 그들을 구속하신 분을 섬길 것이다. 마지막 구절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첫 글자를 삼는 형식에서 벗어나 있다.

핵심 의미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맞이하는 법을 배울 때, 인생의 참 의미를 배우게 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우리의 삶과 시간을 채운다면, 삶의 진정한 기쁨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부패한 태도를 위한 공간은 없게 될 것이다.

만트라로 정신을 채우는 동양의 명상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은 항상 생각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부모님이 곁에 있을 때 말하는 것을 조심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참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곁에 서계시고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달라지게 될지 상상해보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 이상의 마음을 갖는 것임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것이다.

수업계획

삶과의 연결

1. 미리 알파벳 A-F 까지 적혀진 종이를 준비하라. 참여자들이 도착하는대로 종이를 나눠주어라. 다음과 같이 말하라. "우리는 성경안의 시대에 종종 그랬던 것처럼 시를 쓰게 될 것 입니다.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개인 혹은 그룹이 알파벳 글자들로 주어진 한 줄의

시 혹은 여섯 줄의 선택적인 시를 쓰도록 인도하라. (규모가 큰 그룹으로 이 활동을 실시해도 된다). 예를들어,

- A. 당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마음에서부터 경배(Adoration)가 흐른다.
- B.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Becoming)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이다.
- C. 창조(Creation)는 우리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을 계시하면서 하나님의 숨씨를 선포한다.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을 위해 시간을 주어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지은 시를 나눌 수 있도록 권면하라.

- 2. 다음과 같이 말하라. 이 학습을 위한 시편은 알파벳 시편입니다. 이 시는 22 절로 되어있고, 각 절의 처음은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한 히브리 글자가 생략되어있고, 마지막 절은 알파벳 형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학습 공과* 로부터 시의 형태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라). 성경에서 시편 34 편을 펴보도록 하라.

성경 공부 가이드

- 3. *학습 공과* 에 있는 제목들을 다음과 같이 칠판에 적어라.
 - (1)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 (34:1-3)
 - (2) 주님을 찾으라 (34:4-7)
 - (3) 주님을 경외하라 (34:8-14)
 - (4) 주님을 존경하라 (34:15-22)
- 4. 한 그룹을 여섯 명 이하로 만들어라. 다음의 과제와 연관 구절들을 인쇄하고 각 그룹 별로 나눠주어라. 그룹들은 잠시 후 그들이 발견한 것들을 발표할 것이다. (과제에 대한 예시는 www.baptistwaypress.org에 이 학습을 위한 "Teaching Resource Items"에서 구할수 있다.)
 - I.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34:1-3).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와 구절을 찾아라. *학습 공과* 혹은 사전(전화기나 테블릿으로 온라인 사용이 가능한)을 사용해서 각 단어들을 정의하고 묘사해라. 당신과 소그룹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세히 생각해보아라. 성경 공부반 앞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다섯 개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선택하라.
 - II. 여호와를 찾으라 (34:4-7).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그 분을 발견하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근거를 찾아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여정안에 그분을

계시해주신 방법들을 확인하라. 오늘날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숨으신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 III. 주님을 경외하라 (34:8-14). 주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하라. (학습 공과 를 사용해서 확인하거나 답을 추가해라.) 13-14 절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것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 IV. 주님을 존중하라 (34:15-22).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20 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 말씀하신다. 그러나 19 절에 의로운 자들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NIV 84). 당신은 이 두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기 위해 학습 공과 를 사용하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신 사실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성장하도록 도우셨는가?

5. 소그룹들이 5 분에서 7 분을 사용하게 하라. 모든 사람들 다시 제자리로 오게 하라. 소그룹들이 발견한 것들을 나누면서 한 번에 주어진 질문들을 읽어라. 그룹들의 답변을 보완하기 위해 학습 공과 의 내용을 사용하라.

적용격려

6. 다음과 같이 말하라, “칠판에 네 가지 주제 항목을 보아라. 이 항목들 중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부족한 것을 조용히 결정하라. 옆 사람과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서 당신을 성장케 하실 가능한 방법들을 토론하라.”

[끝]

제 8 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시편 40 편</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시편 40 편</p>	<p>학습주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으로 표현된다.</p> <p>탐구질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말해야 하는가?</p> <p>학습목표 시편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요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평가하는 것</p>

성경 주해

배경이해

시편 40 편은 감사와 개인의 간구에 대한 시이다. 시인은 주님을 참음으로 기다린 후에 감사를 드렸다(시 40:1-10). 이 시에는 사건의 순서가 반대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애통한 후에 감사가 있다. 하지만 도우심에 대한 간구가 감사의 찬양 후에 나온다.

시의 첫 소절은 적절한 찬양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원을 묘사한다. 메시아외에는 어느 누구도 성취할 수 없다는 시인의 선언은 참으로 장엄하다. 그러나 시는 인생가운데 얼마나 멋진 찬양이 있든지 문제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 시 안에는 긴급함과 기쁨이 함께 흐른다.

시편 40 편을 인용한 신약 말씀

히브리서 10:5-7 절

본문해석

기다림은 보상받는다(40:1-10)

40:1-3. 구원. 시는 시인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고백으로 시작한다. 시인의 기다림에 대한 보상은 다음 절에서 발견된다. "그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다." 주님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발견할 것이다. 조급함은 종종 주님의 축복을 놓치게 한다.

시인은 2 절에서 주님이 그를 "수렁"으로 표현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 올리셨다고 선포했다. 주님은 시인의 발을 견고한 기반, 반석 위에 두셨다. 진흙 탕을 걸어가는 것은 어렵고 발을 내딛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하지만 주님은 간구하는 자를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곳 위에 두셨다.

3 절에서 주님은 시인을 견고한 반석 위에 안전하게 두셨을 뿐만 아니라 시인의 입술에 "새 노래"를 두셨다. 시인이 수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슬픈 노래를 떠올릴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시인은 견고한 기반 위에 서는 기쁨을 노래했다. 노래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주님이 삶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자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선포한다.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와 입술로 불려지는 노래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다.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데 매우 담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40:4-5. 반응. 4 절은 "복이 있도다"(happy)라는 축복문으로 시작한다. 주님에 대한 신뢰는 기쁨의 복된 상태를 이끌어 낸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에게 치우치는 자"는 실망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과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신경쓴다. "교만한 자"는 다른 신들을 쫓는 자들과 비교된다. 이들은 종교적이며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종교 행위를 나타낸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종교를 사용할 뿐이다.

시인은 5 절에서 주님이 놀랍게 행하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

시인은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했다. 고유한 이름과 일반적인 이름이 함께 나온다. 히브리어로 "야훼"는 "여호와"의 고유한 이름인데 종종 "YHWH"라는 히브리어 네 글자로 기록된다. 여기에 시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한 직분을 연관시켰다. 시인은 그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닌 "야훼"라고 알려진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다. 시인은 어떤 다른 신, 다른 왕, 다른 사람도 이 분의 신성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40:6-8. 선언. 6 절은 시인이 미가서 6:6-8 절과 사무엘상 15:22-23 절의 교훈을 배웠음을 확인시켜준다.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배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제사는 많은 비용이 들고 번제는 매우 비쌌다. 대부분의 제사는 예배자가 제물의 일부분을 취하는 것을 허용했다. 번제는 신에게 완전히 바쳐졌고, 예배자는 제물의 어떤 부분도 취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시인은 "내가 왔나이다"(시 40:7)라고 말했다. 이것은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기대되는 표현이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1 절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했었다. 어린 소년 사무엘은 사무엘상 3:16 절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반응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6:8 절에서 주님께 이런 반응을 나타냈다.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항상 "제가 여기 있습니다"이다. 의로운 자는 항상 "여호와와" 부르심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시 40:8)는 의미는 무엇인가? 답변은 다음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의 규정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법은 주님의 토라[Torah]이다. 이것은 삶을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삶을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삶을 위한 가르침의 성육신이 되셨다. 그러므로 삶의 중심인 마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두는 것은 인생에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

40:9-10. 선포. 시편의 공통적인 주제는 회중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울 때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의 때에는 종종 빠르게 침묵해버리는가.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주님을 팔고 풍성할 때에 주님께 잠잠하다. 시인은 회중안에서 "즐거운 소식"인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기쁨을 표현했다. 그는 증인이 되기 위해 주님을 불렀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잠한 것과 말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시인의 선포는 "절제"되지 않고 완성되었다. 그는 구원의 어떤 부분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소심하지 않았다.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입술로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나아질까?

10 절에서 시인은 내면적 문제로서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했다. 우리는 구원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 속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숨기고 묻어둔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숨길 수 없고 숨겨서도 안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시인은 "주의 구원의 도우심을 숨기지 않았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은 벽장 속에 숨겨져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회중안에 선포되어야만 한다.

연장되는 기다림(40:11-17)

40:11-12. 나의 허물. 시인은 11-12 절에서 그의 죄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정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 시인은 그의 죄가 자신과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에 대한 기쁨 사이에 장애물이 되었음에 지쳐버렸다. 시인은 자비와 신실함에 대한 신적 섬세함을 맛보았었다. 그는 그것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이 없이는 안전이 없기에 그것들이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다.

시인을 둘러싼 재앙은 그의 행동으로 나타났다. 히브리식 병행구조는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하도록 도와준다. "재앙이 내게 미쳤다"라는 표현은 "나의 죄악이 내게 미쳤다"라는 표현과 병행을 이룬다. 실제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 그의 죄는 주님과 관계를 위협했다. 어떤 외부의 적도 시인을 취하려고 위협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다.

40:13-15. 나의 적들. 적들은 구원을 위해 주님을 부르도록 시인을 깨웠다. 적들이 시인을 완전히 황폐화 시키도록 허용하는 대신, 그는 주님을 계속해서 신뢰했다. 악한 자들은 시인의 넘어짐을 악용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적들은 시인을 낮추지 못한다.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시인은 주님을 신뢰했다.

40:16-17. 나의 도우심. 적들의 기쁨이 나타난 15 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인의 기쁨과 같지 않았다. 그는 이런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 놀라운 경험을 위한 추가적인 조건은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다. 시인은 "여호와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선언을 금할 수 없었다. 주님의 위대하심은 시인의 "가난하고 궁핍한" 형편과 일치했다. 시인이 더욱 더 그의 필요를 깨닫는 만큼, 그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더 크게 감사했다. 세상의 위대한 리더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한 생각을 자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그런 리더들과 다르다. "여호와"는 "나를 생각하신다."

핵심 의미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인내와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친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에 도움은 빨리 올 수 없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구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모든 것이 인스턴트 식이다. 우리는 인스턴트 아침 식사를 한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즉석으로 접한다. 우리는 인내, 기다림을 위한 감사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아주 오랜 시간 주위에 계셨으며, 주님은 인내를 알고 계신다.

이 시편은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기쁨을 경험한 후에도 재앙이 닥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좋은 시간들은 우리가 삶의 시도적인 환경에 면역되지 않게 한다. 우리는 특히 삶의 기쁜 시간들을 좇으면서도 항상 인생의 어려움을 대할 준비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배워가면 갈수록, 우리는 인생에 찾아올 어려움들을 더 좋게 말할 수 있다.

수업계획

삶과의 연결

1. 칠판이나 포스터에 큰 글씨로 다음의 단어들을 적어라. "실망"[DISAPPOINTMENT], "상처"[HURT], "상실"[LOSS].
2. 짧게 두 세 사람에게 다음에 나오는 사례들을 말하라.
 - a. 교회에서 자란 18 살의 소녀가 청소년 모임에서 자신이 코카인에 중독되었다고 고백한다.
 - b. 당신 교회의 신뢰할 만한 평신도 리더가 교회의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기 위해 아내와 자녀를 떠난다.
 - c. 청소년 목사인 당신의 아들이 담임 목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다. 교회는 주일 학교에 출석하는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못마땅하다. 그래서 당신은 석 달내로 목사직을 사퇴하게 될 것이다.
3. 다음을 질문하라. 칠판에 적힌 단어들은 이 시나리오들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얼마나 묘사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상실에 대한 유사한 경험이나 그들의 느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나누도록 요청하라.

성경 공부 가이드

4.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라. 믿는 자들이 상처와 실망과 함께 감사의 시편을 연결시키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종종 그의 개인적인 고통의 경험을 찬양하는 중요성과 함께 연결시켰다.
5. 사람들에게 시편 40 편을 펴도록 요청하고 다음의 내용을 주목하라.
 - a. 다윗의 삶 동안 그는 사울 왕에 의한 위협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포함한 역경들을 만났다(사무엘하 18:33 절을 보아라).
 - b. 이런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며, 그의 노래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그의 감사를 표현하게 했다.

- c. 시편 40 편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과 삶 속에서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6. 칠판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40:1-5)라고 적어라.

- a. 한 사람에게 본문을 소리 내어 읽도록 부탁하라.
- b. 질문: 당신은 어떤 관점에서 시인의 상처나 상실을 깨달을 수 있는가?
- c. 사람들에게 다윗과 그들의 삶에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40:2, NIV)에 대해 반응하도록 격려하라.
- d. 질문: 시인은 그의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찾아왔는가?
- e. 자원자에게 4-5 절을 다시 읽게 하라. 사람들에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가져오셨는지 간증을 나누도록 요청하라.

7. 칠판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헌신"(40:6-10)이라고 적어라.

- a. 다윗은 그의 감사를 단순히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 b. 사람들에게 시편 40:6-10 절을 읽도록 요청하라.
- c. 사람들로 하여금 학습 공간 에서 오늘 제목 밑에 있는 처음 두 단락을 읽게 하라. 질문: 우리가 예배때 사용할 수 있는 형식들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형식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하는 것을 대체하고 있는가?

8. 칠판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40:11-17)이라고 적어라.

- a. 사람들로 하여금 조용히 시 40:11-17 절을 읽게 하라.
- b. 그룹별로 11 절의 다른 번역들을 비교해보게 하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인을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다양한 단어들을 주목하라("사랑"과 "진리"[NIV];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NRSV]; "자비"와 "진리"[NASB]).
- c.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어려울 때 그들을 돕는지 짧은 간증의 말들을 나누도록 요청하라.
- d. 질문: 12 절에서 "나의 죄악이 내게 미쳤다"(NIV)라는 시인의 고백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머리털보다 많은" 죄에 대해 스스로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도록 격려하라.

적용 격려

9. 칠판에 적은 세 단어들을 가리켜라(첫번째 단계를 보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망, 상처 혹은 상실을 가져오는 상황을 적어도 한 가지씩 집중하도록 요청하라.

10. 시인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필요할 때 취하게 되는 세 가지 태도와 행동을 제시한 사실에 주목하라.

- a. 직접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의하고 감사해라.
- b. 상황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과 헌신을 통해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 c. 당신을 사랑하며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어라.

[끝]

제 9 과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시편 53 편</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시편 14 편; 53 편</p>	<p>학습주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분의 결정을 거절하는 것과 따르는 것</p> <p>탐구질문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사람들을 왜 그렇게 자만하는 것일까?</p> <p>학습목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런 삶이 어리석은 것임을 말하는 것</p>

성경 주해

배경이해

시편 53 편과 14 편은 한 가지 작은 차이만을 제외하고 서로 비슷하다. 예를 들어, 시편 53:2 절 전반부와 4 절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대응되는 시편 14:2 절 전반부와 4 절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시편 53 편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시편 42-83 편을 종합해 놓은 시와 같다. 반면에, 시편 1-41 편과 84-150 편은 하나님의 신성 고유의 이름인 “여호와”(Yahweh) 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한다. 시편 53:5 절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두 개의 시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담고 있다(시편 14:5 절을 보아라). 또한 시편 14:6 절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묘사하고 있다.

시편 14 편과 53 편에 묘사된 무신론 사상은 현대 철학이나 지적 무신론보다 더 은밀하게 퍼지는 사상이다. 이 두 시편에는 무신론이 중심에 있다. 이 시편들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는 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의 삶과 개인의 의사 결정 속에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신중한 행동은 주님을 찾으며 그 분께 순종한다.

시편 53 편을 인용한 신약 말씀

로마서 3:10-12

본문해석

우매하며 어리석은 자(53:1-5)

53:1. 처음 다섯 구절은 예언적인 음성으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1-3 절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고발장이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시편은 악한 자들의 부패함을 자세히 밝힘으로 시작한다. 시인은 “어리석은 자들”을 정죄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히브리어로 “어리석은자”라는 단어는 나발인데 문자적으로 도덕적인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을 나타낸다. “나발”이라는 단어는 “바보”[dumb], “멍청이”[stupid], “유치한 사람”[buffoon], “우스운 사람”[clown]라는 뜻이 아니다. “나발”로 표현되는 사람은 옳지 않은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사무엘 상 25 장은 “나발”의 전형적인 묘사를 담고 있는 이야기이다. “나발”은 그 당시 사회에서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에 대해 잘못된 추측을 했다. 나발은 현실에 대해 잘못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다.

마음(시 53:1)은 감정의 자리이다. 뜻과 생각의 장소이다. 우매함은 하나님이 없다는 추측을 만든다. 어리석은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

“어리석은 자”는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반대하여 지적 논쟁을 벌인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하여 행동한다. 사람들은 부패하고 비뚤어진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실재를 부인한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문장은 비슷한 형태로 되돌아 온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 두 개의 문장은 함께 간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두 번째 문장이 제공하는 답변은 “아무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이다. “아무도”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선을 행하는 자는 심지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다.

그들은 부패해서 만지며 접촉하는 것을 파괴시킨다. 시인은 “가증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죽은 동물을 먹는 부정한 새를 묘사할 때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시인이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바울은 로마서 3:10 절에 이 개념을 사용했다. 그가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헬라어 성경을 인용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53:2 시인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높이 들림 받은 사실을 표현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다. 이 모습은 하늘과 땅 사이를 자세히 살피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자가 있는지 “보기”를 원하셨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은 가장 낮은 곳에 빠져 버렸다.

53:3. 이스라엘의 상태는 끔찍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버렸다. “비뚤어진”[perverse]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상태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전했다. 하지만 1 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시인은 강조를 위해 “전혀, 한 사람도”라는 단어를 덧붙였다. 시인은 청중들이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를 알기를 원했다. 일부가 아니라 온 국민이 부패했다.

53:4-5. 이 구절은 이스라엘을 진단하는 것에서 책망하는 것으로 옮기고 있다. “내 백성을 먹는”(시 53:4) 악한 자들과 의인들(암시된)의 대조가 일어난다. 시인이 살았던 사회는 부패한 인간 상태의 특징으로 두드러졌다. 이스라엘은 타락한 상태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4 절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를 설명한다. 이 구절은 시적 이미지를 통해 그것이 부패하고 무모한 제사장 직분 때문임을 보여준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사때 하나님께 바친 예물, 곧 하나님의 “떡”으로부터 생계를 얻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예물을 더럽혔다. 제사장들의 부패는 비유적으로 “내 백성을 먹는”자들이라 표현되었다. 백성들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먹이지 못한 것이 오히려 백성들을 먹는 제사장이 되게 했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무시했었다.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은 제사장을 영적 보호자로 보았는데, 그들은 실패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주님의 예물을 더럽혔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53:5).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온 땅에 임한 “큰 두려움”은 경건치 않는 삶의 결과다. 시인은 이 구절에서 “두려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세 번이나 사용했다. “큰 두려움”으로 번역되기 위해 히브리어 단어는 두 번 반복하여 표현되었다. 이스라엘이 이 전에 알지 못한 두려움을 묘사하기 위해 세 번째로 명사 “두려움”을 사용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뼈”를 흠으셨기 때문에 일어났다. “뼈”라는 단어는 죽음을 의미한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죽은지 오래되었다. “뼈”는 살이 이미 썩어버린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부패했다. 그들의 노출된 뼈는 부끄러운 모습이였다. 게다가 만일 제사장들이 하나님 옆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이미 버리셨고,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제사장들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올 것이다.

기도 (53:6)

6 절은 미천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다. 짧게 멈춘 후에 시인은 기도를 했다. 이 기도는 슬픔을 담은 진지하며 열정적인 것이다. 기도는 이스라엘의 "장래"에 변화가 있기를 간구했다. 하나님만이 이 간절한 변화를 가져 오실 수 있다. 시인은 이 퇴보하는 민족에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구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부터" 와야만 한다. "시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의미한다. 시인이 간구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제사장 직분이 변화되고, 새롭게 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르친 후에야 비로서 올 수 있다. 백성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결합된 후에야 죄악에서부터 돌이킬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때 온다. 구원의 기도는 믿는 자를 주님 안에서 즐거워 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순교자의 증언과 예수 십자가의 증거는 고난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

핵심 의미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현대적, 철학적 논쟁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에 성경 기록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53:1) 라고 말한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성향이였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곤경을 무시할 때 우리는 시인이 의미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쫓긴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우리로 그들을 돌보기 바라신다. 만약 그것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없다"(53:1)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실재를 선포한다.

수업계획

삶과의 연결

1. 미리 두 사람에게 말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근거로 한 다음 대본을 준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라.

독자 1: 잘 들어라 이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

독자 2: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독자 1: 아론, 백성들은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있어. 모세는 한 달이 넘도록 떠나 있잖아.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보여줘. 그들은 너가 필요한 모든 금붙이를 줄거야.

독자 2: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독자 1: 유다, 너에게 말해줄게. 너가 그의 손을 강제로 잡아야만 그가 적당한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 게다가 너는 작지만 특별 수당을 받게 될거야.

독자 2: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독자 1: 너의 책이 성공한 것을 축하해. “하나님이 없다”라는 아이디어로 모든 사람들을 모은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야.

독자 2: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대본은 www.baptistwaypress.org에 들어가 시편 연구를 찾으면 얻을 수 있다.)

2. 사람들로 하여금 한 목소리로 *학습 공간* 안에 인쇄된 시편 53:1 절을 읽도록 인도하라. 기도를 인도하라.

성경 공부 가이드

3. 사람들이 연극 안에서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 짧게 나누도록 요청하라. 공개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쉽게 구별되지만, 심지어 교회안에서도 “기능적 무신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기능적 무신론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습 공과 안에 있는 이번 교과 서론의 단락을 보아라.)

4. 사람들로 하여금 시편 53:1-6 절을 읽도록 요청하라. 칠판에 “어리석은 자에 대한 정의”를 적어라.
 - a. “어리석은 자”의 의미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것들을 칠판에 적어라.
 - b. 사람들에게 “Description of the Foolish” 밑에 있는 학습 공과의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요청하라. 칠판에 적힌 아이디어들도 포함시켜라.
 - c. 사람들에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기능적 무신론”의 실재에 대해 토론하게 하라. 토론에 기여하기 보다 가십이 될 수 있는 개인적이며 특정한 예를 피하도록 주의하라.

5. 사람들로 하여금 잠언 9:10 절을 읽도록 요청하라.
 - a. 다음을 질문하라. 이 구절과 하나님에 대한 어리석은 자의 이해는 어떻게 대조되는가?
 - b. 잠언 8:1-11 절을 읽어라. 다음을 질문하라.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가?

6.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시편 53:2-3 절을 다시 읽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로마서 3:23 절을 읽게 하라.
 - a. 다음을 질문하라. 시편 53:2-3 절과 로마서 3:23 절은 어떻게 비교되는가?
 - b.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종종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미래의 죄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주목해라.
 - c. 다음을 질문하라. 당신은 이번 주 동안 지은 특정한 죄들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가? 어떤 격려가 주님께 그 죄들을 고백하기 위해 당신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는가?

7. 시편 53:4-5 절을 다시 읽어라. 주님의 보호 밖에서 사는 삶의 필연적인 결과는 개인적, 사회적인 완전한 도덕적 붕괴라는 사실을 말하라. 시편에 나오는 이미지는 서로의 마음을 빼앗는(탐욕과 착취등으로) 사람들을 연상시킨다.

8. 시편 53:6 절을 읽도록 사람들에게 요청하라. 다음을 질문하라. 시인의 열망을 무엇이었나? 당신은 이 구절이 예수님과 어떻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구원자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다!)

적용 격려

9. 사람들에게 조용히 학습 공과 안에 있는 “오늘을 위한 적용”을 읽도록 요청하라.

10.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침례교회 일요일 출석 인원은 교인의 절반 숫자보다 더 적다는 것을 말하라. 다음을 질문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라는 저자의 말이 통계적으로

확정되고 있는 사실에 당신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라는 말을 제안하는 다른 요인들은 무엇일까?

11. 사람들에게 이번 주에 기도 일기를 준비하도록 요청하면서 마무리 하라.

- a. 매일 시편 53:1 절을 읽어라.
- b. 오늘 나는 어떤 일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라.
- c. 당신의 답변을 적어보고 깊이 생각해보아라.

[끝]

제 10 과	간절한 부르짖음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시편 69 편</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시편 69 편</p>	<p>학습주제 깊은 고통 중에서 시인은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p> <p>탐구질문 막다른 장소에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설 수 있을까?</p> <p>학습목표 간절한 시인의 기도를 요약하고 이것이 어떻게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발견하는 것</p>

성경 주해

배경이해

이 시편은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모두 갖고 있다. 구약의 배경 속에 이 시는 한 편의 애가이고 깊은 고통과 슬픔을 표현한 노래이다. 유배, 버려짐, 애도의 감정은 이런 시편 안에 있는 공통적인 감정이다. 애가는 보통 개인적이거나 공동체적인 내용이다. 이 시편은 개인적인 내용이다. 시인이 자신의 고통을 표현했지만, 개인의 고통이 사회 한 가운데서 일어났다. 슬프게도 시인이 속한 사회는 그를 핍박하고 멸시함으로 그의 고통을 더했다. 집단적인 핍박과 경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느낌이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절망적인 느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구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느낌으로 옮겨갔다.^{xvi}

시편 69 편은 시편 22 편 다음으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내용 중 하나이다 (제 4 과를 참고하라). 신약의 저자들은 이 시편의 각 구절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리스도가 경험한 것의 메아리를 들었다.

우리는 시편의 일반적인 성격때문에 시편 69 편의 정확한 역사적 문맥을 알 수 없다. 33-36 절은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리고 유다의 성읍을 재건축하시며 백성들을 그 땅에 정착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 사실은 시편 69 편이 포로기 혹은 포로 후기 때 쓰여진

것임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포로 전 특정한 시대에 어울리기도 한다. 성전이 중점적인 주제다(시편 69:9 절을 참고하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에 걸쳐서 성전에 집중했다. 이 시편은 성전에 대한 종교적 논란을 반영하기도 한다. 또한 포로 시기 성전이 파괴된 후에 이스라엘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시인의 고민은 잃어버린 성전을 위해 통곡하는 것으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정확한 문맥이 무엇이든지 시편 69 편은 개인적인 고통에 대한 강렬한 표현이다. 절망과 소망 사이를 움직이며, 이 시편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통과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비록 고통받는 한 개인의 감정이 표현되었지만, 온 회중은 예배 중에 이 시편을 낭독하고 자신들과 이 시편의 내용을 동일시 했다.

시편 69 편이 인용된 신약 말씀

요한복음 2:17; 15:25; 사도행전 1:20; 로마서 11:9-10; 15:3

본문해석

하나님의 도움을 위한 간청(69:1-29)

69:1-3. 이 시편의 제목은 “백합[lilies]에게”(히브리어로는 ‘소산님’)이다. 시편 45 편에도 같은 단어가 제목으로 사용되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 제목을 “영장[tune]으로 ‘백합’에게 맞춘 노래”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영장으로”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다. “백합”이라는 단어는 영장 혹은 악기라는 뜻일 수 있다. 또한 “다윗의” 라는 단어도 제목에 나타나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의 제목들이 훗날 성경에 덧붙여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을 다윗이 썼는지도 알 수 없다. “다윗의”라는 의미는 다윗이 썼다는 뜻이거나 다윗의 스타일로 써졌다라는 뜻일 수 있다. 아니면 다윗의 인생을 반영했다라는 뜻이 될 수 있다. 두 번째와 마지막의 내용이 가장 가능성 있는 추측이다.

이 구절들은 물에 빠지는 이미지를 사용했다(시편 130:1 절과 비교해라). 물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본능적인 두려움 중 하나이다. 시인은 끔찍한 역류나 큰 홍수 속에 갇힌 사람처럼 느꼈다. 이것은 마치 문제가 그를 압도하려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느꼈다. 그의 목은 소리를 질러서 말라 버렸고, 그의 눈은 그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느라 피곤했다. 그의 가장 큰 괴로움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지연하신다고 느끼는 것이었다.

69:4. 시인의 고통의 이유들 중 하나는 아무 이유없이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털 만큼 많게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비교법을 사용하며 시인은 사람들의 적대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대적들이 그에게 흠치지도 않은 것을 되돌리라고 강요하면서 증오심을 나타냈다는 사실이다.

요한복음 15:25 절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라는 구절을 인용하셨다. 그리고 그와 제자들의 고통을 이것과 연결시키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과 연결 시키셨다. 세상은 이유없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분을 핍박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했기 때문에, 세상은 이유없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도 핍박했을 것이다.

69:5-6. 시인은 그의 적들이 이유없이 그를 미워했고 그들의 핍박과 멸시를 받을 만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아셨을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실패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69:7-9. 시인이 상대하는 적은 가장 가까운 관계로 까지 확장되었다. 욥기 19:13-15 절은 가족들에게 당하는 비슷한 소외감을 표현했다. 시편 69:9 절은 시인이 핍박을 느끼는 이유 중 한 가지가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한 큰 열심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열심은 매우 강렬해서 시인을 삼켜 버렸다. 그는 다른 것에 집중하기 어려워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공감대는 굉장히 강하고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모욕은 그에게 전이되었다.

신약에 있는 두 구절, 요한복음 2:17 절과 로마서 15:3 절은 시편 69:9 절을 언급한다. 요한복음 2:17 절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내용과 관련하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라는 구절을 인용한다.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에 대한 시인의 공감대와 그의 열정을 반영했다. 로마서 15:3 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책망했다.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로마서 15:1). 바울은 "주를 훼방하는 훼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았음을 말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순종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자신에게 떨어지는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행하셨다.

69:10-12. 시인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금식하고 울었으나 모든 사람들로 부터 조롱을 당했다. "성문"에 있던 사람들은 성을 이끄는 관료들이었다. 성문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거나 법적 논쟁을 했던 중요한 모임 장소였다. "술 취한 자들"은 시인은 대적하는 마지막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높은 사람들에서부터 낮은 사람들까지 시인을 비웃었다.

69:13-18. 절망적인 상황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그분의 큰 사랑으로 자신을 수렁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시인은 진흙과 물이 함께 있는 웅덩이나 우물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웅덩이에 대한 암시는 요셉(창 37:24)과 예레미야(렘 38:6)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절망적인 곤경에서부터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시간이 얼마 없었다.

69:19-21. 시인은 그의 고통으로 다시 돌아섰다. 그는 간절히 사람의 도움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셨다. 마태복음 27:48 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있을때 군인들이 그에게 강초를 주었던 것을 말하며 시편 69:21 절을 언급한다.

69:22-26. 시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보응이 있기를 요청하며 저주했다. 시인은 그들의 부가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즐기던 풍부함이 그들의 울무가 되기를 기도했다. 로마서 11:9-10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반대하여 마음을 굳게 하는 유대인들의 운명을 이야기하며 시편 69:22-23 절을 인용했다. 사도행전 1:20 절은 사도들이 가롯 유다의 죽음으로 그들 가운데 생긴 공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때 베드로가 유다의 자리를 대체할 것을 주장하며 시편 69:25 절을 인용한 내용을 기록했다. 그는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성경을 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6 절에서 시인은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상처를 증가 시켰기 때문에 보응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처벌을 증가시킬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가로채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된다.

69:27-28. 시인은 그의 적들을 더 많이 저주 했다. "생명책"은 생명을 위해 예정된 의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 요한 계시록은 마지막 심판과 관련하여 이 이미지(계 3:5; 21:27)를 사용하고 있다.

69:29.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위한 마지막 간절한 요청을 한다.

감사(69:30-36)

69:30-31. 30 절에서 시인은 슬픔과 괴로움에서부터 기쁨과 감사로 넘어갔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를 건져 주시지는 않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표현했다. 시인은 동물로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로 찬양한다. 이런 찬양은 값비싼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다.

69:32-33. 시인은 자신을 가난한 사람들과 동일시 하며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의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69:34-37. 시편 69 편이 절정을 향해 가면서 시인은 온 우주가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유다 성을 재건축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요청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들의 고향에서 살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표현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인은 이렇게 될 것을 믿었다.

핵심 의미

시인의 글은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 경험하는 두려움과 믿음의 감정을 표현했다. 시편 69 편은 삶의 문제에 압도당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다. 이 시편에서처럼 두려움의 감정은 종종 부당함을 느끼는 감정과 함께 오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죄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낀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판과 멸시를 두려워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써 우리는 이 시편 안에 표현된 복수심에 깜짝 놀라지만 그것의 정직함을 발견한다.

가장 어려운 시간속에 우리는 두려움과 버림받는 느낌에 근접해있는 믿음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우리 문제와의 싸움은 실제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 그분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최소화 시켜주시지 않아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시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우리가 돌아설 곳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의 임재와 힘을 구할 수 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항상 가져가 주시지는 않을지라도 그 분은 항상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25 절에 시편 69:4 절을 언급하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시편 안에 표현된 감정을 공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때문에 그를 핍박했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의 고통 중에서도 그들을 굳게 세워주실 것을 가르치셨다. 시인처럼 제자들도 천지를 만드신 분을 노래하는 찬양에 결국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수업계획

삶과의 연결

1. 수업전에 한 사람에게 독백 형식의 "말론의 이야기"를 발표할 수 있도록 부탁하라

말론의 이야기

내 이름은 말론입니다.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때 당신은 내가 말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지를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그 분때문에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기전 나는 모든 것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10 계명의 모든 내용을 어겼었고, 마약, 술, 섹스 그리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중독 되었습니다. 정리했다 싶으면 다시 중독에 빠졌습니다. 내 가족들과 약속을 해도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내가 지금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매일 개인적인 악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때때로 나의 옛 친구들이 나를 비웃고 술 취해 있지 않으려는 나를 조롱합니다. 매우 어려울때도 있지만 나는 내가 가진 유일한 소망은 강건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속적으로 대면하는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 주시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데 대해 들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교회에 가자고 말했고 지금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옛 생활로 나를 끌어가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영원토록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 사람들에게 이것은 실제 이야기임을 말하며 간단하게 소개하라.

- A. 이야기 발표후에 사람들에게 말론을 위해 기도하고 그의 이야기가 친구들의 삶 속에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하자고 요청하라.
- B. 질문: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3. 다음의 네 가지 요소를 칠판에 적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론의 이야기 안에서 각 요소들이 어떻게 발견되는지 볼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대한 반응을 질문하라.

- A. 나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 B.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 C.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 D.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경 공부 가이드

4. 사람들에게 시편 69 편은 시인도 말론이 그의 경험에서 대면했던 감정적 반응들을 동일하게 대면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하라.

5. 칠판에 적힌 첫 번째 요소 옆에 "시편 69:1-12 절"이라고 적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본문을 읽게 해라.

- A. 우리는 이 시편이 쓰여지게 된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에 주목하라.

- B. 사람들에게 시인이 그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미지들을 찾도록 요청하라. 그것들을 칠판에 적어라(예를들어, "물," "목까지," 시 69:1, NIV84).
- C. 학습 공과를 인용하라: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에 매우 지쳤고 거의 포기했다."
- D. 질문: 말론의 이야기는 이런 종류의 절망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나?
- E. 질문: 어떤 종류의 경험이 당신의 삶 속에 비슷한 고통을 가져왔는가?
- F.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시편 69:5 절을 읽도록 요청하라. 질문: 시인의 고백의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 G. 사람들로 하여금 시편 69:6-12 절을 조용히 읽게 하라. 다음의 사실을 언급하라. 시인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그의 기질 중심에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졌다.
6. 목록의 두 번째 요인 옆에 "시편 69:13-21 절"이라고 적어라. 그 밑에 "... 그러나 ..."라고 적어라.
-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사람들에게 접속사 "but"의 뜻을 정의하도록 해라.
 - 이 단어가 급격한 대조를 이룬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질문: 깊은 물 속에 휩싸인 상태로 묘사한 절망으로부터 시인이 대조를 이루고자하는 요점은 무엇인가?
 - 누군가로 하여금 시편 69:13-21 절을 읽게 하라. 시인이 문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 질문: 이 부분에서 시인이 대면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지연)
 - 질문: 당신의 요청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요구된 적이 있는가?
 - 질문: 말론의 이야기는 어떻게 그런 확신을 나타낼 수 있나? 당신은 다윗의 믿음을 떠올릴만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7. 칠판에 있는 세 번째 요소 옆에 "시편 69:22-28 절"을 적어라. 그리고 누군가로 하여금 이 본문을 읽도록 요청하라. 그 목록 밑에 "저주하지만 정직한"이라고 적어라.

- A. “저주하는” 기도에 대해 토론할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르짖음(69:22-29)”이라는 제목 밑에 적힌 학습 공과를 참고 하라.
- B. “저주하는”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뜻을 주목하라.
질문: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대한 당신의 이해와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
- C. 사람들에게 다음 내용을 상기 시켜라. 하나님은 언제나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정직하기를 바라신다. 심지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한 생각으로 감정이 가득차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며 이런 생각들을 통해 일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8. 마지막 요소 옆에 “시편 69:29-36 절”이라고 적어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본문을 읽도록 요청하라.
- A. 질문: 29 절과 30 절 사이의 연결점을 무엇인가?(찬양은 안도감보다 먼저 나온다.)
- B. 걱정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들으신다”(69:33)라는 확신으로까지 시인의 부담이 어떻게 옮겨지게 되었는지 주목하라.

적용 격려

9. 첫 번째 목록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목록들을 관통하며 결국 마지막에까지 이르는 큰 화살표를 그려라. 질문: 이 화살표는 당신에게 무엇을 제안하는가?(생각과 감정의 진행)
10.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시인처럼 느낄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조용히 생각해 보도록 인도하라. 그리고 종이 위에 그것을 적게 하라(적을 수 있는 종이를 나눠주거나 참여자들이 그들의 “학습 공과”에 적을 수 있다).
- A.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아래 목록의 요소들을 그대로 적도록 요청하라.
- B. 사람들이 한 주 동안 매일 그 문제를 바라보고, 구체적인 문제를 위한 각 요소들의 적용을 반영함으로써 시편 69 편의 기도를 하도록 격려하라.

[끝]

제 11 과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에 대한 증언
핵심본문 시편 91 편 배경 시편 91 편	학습주제 하나님은 가장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보호와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탐구질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학습목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와 구원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시인의 증언을 정리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증거하는 것

성경 주해

배경이해

시편 91 편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시편들 중 하나이다. 이 시편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과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 시편 91 편과 46 편은 성경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얻는 힘을 노래한 가장 감동적인 증언들 중 하나이다. 두 시편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지만,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편 46 편은 공동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시편 91 편은 개인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 시편 91 편은 하나님을 믿는 개인적인 유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편 46 편보다 더 친밀감이 있다.

시편 91 편은 지극히 개인적 내용을 다루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때 이 시를 사용했던 것 같다. 그런 목적때문에 시편 91 편은 노래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낭독자는 회중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 격려하면서 1-13 절을 읽었다. 이 시편은 각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상기시킴으로써 회중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신약은 시편 91 편을 메시아에 관한 시로 제시하지 않지만, 이 시편은 복음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실 이 시편은 사단에 의해 인용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 4:6 절과 누가복음 4:10-11 절은 모두

사단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가장 높은 곳에 세워놓고, 스스로 밑으로 뛰어내리라고 설득하는 내용을 기록한다. 사단은 그의 유혹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 시편 91:11-12 절을 인용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때, 우리는 이 구절들이 문맥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예수님이 그 구절들에 대한 사단의 해석을 어떻게 거절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시편은 어떻게 참 예배자가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위험한 문제를 대면할 능력을 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시편 91 편을 인용한 신약 말씀

마태복음 4:6; 누가복음 4:10-11

본문 해석

회중에게 말하라 (91:1-13)

91:1-2. 첫 구절은 시편 91 편 전체의 일반적인 주제에 대한 기초를 세운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두 이름을 사용한다: “엘 엘론”과 “엘 샤다이.” 지존자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 엘론”은 하나님의 능력, 탁월함 그리고 주권에 관심을 갖게 한다(창 14:20 절을 보아라).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 샤다이”는 하나님의 충분성을 강조한다(창 17:1 절; 출 6:3 절을 보아라). 이 이름들 외에 시편 91:1-2 절은 하나님의 보호를 묘사하기 위해 “은밀한 곳”과 “그늘”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름들과 이미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완전한 안전이 있음을 보여준다.

2 절은 하나님의 보호를 묘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다른 이름과 두 개의 다른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여호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주목하게 한다. 이 이름은 “나는”[I AM]이라는 뜻에 어원을 두고 있다.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I AM WHO I AM]라고 번역될 수 있다(출 3:14 절을 보아라). 대부분의 현대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주님”(LORD)으로 바꾸었다. 두 개의 다른 이미지는 “피난처”와 “요새”다. 고대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원수들로 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벽으로 둘러싼 성 안에 있기를 원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원수도 그를 해할수 없는 안전한 장소임을 고백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밑줄은 강조를 위해 사용되었다). 지존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시인과 함께 관계를 가지심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민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하나님이시다.

91:3.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기 위해 두 개의 비유를 사용했다: “들새 사냥꾼의 올무”와 “역병.” “들새 사냥꾼의 올무”는 새를 잡기 위해 고대 사냥꾼이 사용했던 기구였다. 새가 함정에 걸려 들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시인은 청중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말하기 위해 이 비유적 이미지를 사용했다. “역병”은 치명적인 질병을 의미한다. 고대 사람들은 여러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 없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질병 중 하나에 걸리면 죽는 것은 확실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 이런 위험으로부터 확실히 구원하신다고 선언했다.

91:4. 여기서 의미하는 “깃”과 “날개”는 새의 날개(시 17:8; 36:7 절을 보아라);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출 25:17-22 절을 보아라); 또는 하나님을 둘러싼 천사를 뜻할 것이다. 만약 이 이미지가 새를 뜻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암탉이 새끼들 위에 그의 날개를 펼쳐서 보호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날개 안에 감싸져 있는 것은 인간이 줄 수 있는 다른 보호와 비교할 수 없다.

이 구절은 보호에 대한 두 개의 다른 이미지를 사용한다: “방패”와 “성벽.” “방패”는 군인의 개인적인 보호를 위해 사용되었다. “성벽”[rampart]는 원수로부터 군인들을 보호해주는 높은 벽이나 탑이었다. 이 군사적 이미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백성들에게 위험을 막아내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훌륭한 이미지들을 열거하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안전과 보호를 나타냈다. 궁극적으로 믿음이 주는 용기는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의, 사랑 그리고 보호와 같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서부터 나온다. 다음 구절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모든 걱정과 영적 위협보다 그의 백성을 높이 올려 주시는지를 보여준다.

91:5-6. 이 구절들은 히브리 시의 대구법[parallelism]에 대한 멋진 예이다. 각 구절과 함께 거울처럼 비교하고 대조하는 대구법이 사용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5 절의 첫 번째 행은 6 절의 첫 번째 행 “흑암 중에 퍼지는 역병”과 병행을 이룬다. “낮에 날아오는 화살”이라는 5 절의 두 번째 행은 6 절의 두 번째 행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과 병행을 이룬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밤과 낮의 공포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이다. “밤의 공포”라는 표현은 초자연적인 악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 같다. 많은 고대 사람들은 악한 힘이 흑암을 이용한다고 믿었다. “역병”이나 질병은 밤에 활성화 된다. “낮에 날아오는 화살”은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악이나 폭력을 의미하는 것 같다.

91:7-8. 시인은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신실하지 못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의로운 자들 옆에 쓰러질 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악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다. 시인은 악인의 운명을 흐뭇해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높이려고 한다.

91:9-10. 이 구절들은 “피난처”와 “처소” 그리고 “엘 엘론”과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첫 구절의 묵상과 이미지로 다시 돌아간다. 1 절과 2 절이 더 일반적이고 가상적인 내용을 다룬 것이라면 이 구절들은

확실한 선언을 하고 있다. 이 구절은 만약 당신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는 질병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한다.

91:11-12. 11-12 절은 아름다운 이미지 안에 있는 9-10 절의 생각을 더 발전시킨다. 하나님은 그의 힘센 천사들에게 그를 신뢰하는 자를 둘러싸고 보호하라고 명하실 것이다. 그들은 마치 그 사람이 어린 아이인것 처럼 손으로 붙들어 올려서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고대 시대에는 길과 도로가 잘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그들을 다치게 하는 튀어나온 돌 위에 넘어졌다. 하나님은 매일의 위험으로부터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4:6 절과 누가복음 4:10-11 절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며 이 구절을 인용했다. 그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웠다. 사단은 예수님께 스스로 몸을 던지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 이 말씀을 인용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를 보호하실 것이라 말하기 위해 이 본문의 약속을 내밀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6:16 절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시편의 약속에 대한 범위를 보여 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동 하셔야만 하는 상황으로 우리 자신을 놓으면서 그 분을 이용하려 해서 안된다. 시험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 분의 도움을 의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우리 자신을 놓으므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보기 위해 그 분을 시험해서는 안된다.

91:13.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종류의 위험도 넘어 다닐수 있다. 사자와 독사도 일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이미지가 된다. 사람으로써는 불가능한 것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가능하다.

하나님의 확증 (91:14-16)

14-16 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확증하셨다. 그는 이 시편에 있는 약속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다. “사랑하는”과 “아는”이라는 단어는 친밀한 관계를 암시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귀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장수”[long life]와 “구원”이다(시 91:16). 이 시편이 쓰여졌을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대신에 장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관지었다. 이 시편의 내용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기 보다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

핵심 의미

시편 91 편은 수 천년동안 셀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크고 능력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는 위대하고 강하시며 “지존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한 언약안에 들어가신

“전능자”이시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심지어 암탉이 새끼를 날개로 품어 주는 것과 같은 보호로 우리를 덮으시는 부드러운 하나님이다. 이 시편은 문제가 오지 않을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서도 그를 신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것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시편의 약속들은 아름답고 놀랍지만 사단이 인용한 11-12 절은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이 사단을 바로 잡으셨을 때 그는 이 약속이 일반적인 삶의 방식안에 일어나는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추정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려 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 성경의 전체적인 증언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말한다(욥을 보아라).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적 목적을 위해 죄없는 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말한다(사 52:13-53:12 절을 보아라).

신약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에 대한 내용을 더 깊게 만든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구원대신에 위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했다. 그는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것을 이긴다”[more than conquerors]고 말했다.

수업계획

삶과의 연결

1. 사람들에게 “피난처”[shelter]를 정의해보도록 요청하라.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피난처의 목적을 간단하게 토론하라. 몇 분의 시간을 주고 두 사람이나 소그룹으로 나뉘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른 종류의 피난처들을 적어보게 하라 (대피소, 노숙자 보호소, 감세 수단[tax shelter], 텐트, 차고, 버스 정류소 등). 시간이 다 되면, 한 그룹씩 나와서 목록을 읽게 하고 다른 그룹들이 자신들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단어를 추가하게 하라.
2. 수정된 목록이 완성되면 다음에 열거되는 단어를 읽어라. 그리고 그룹들로 하여금 각각의 위험과 연관되는 피난처에 표시하게 하라: 폭풍, 기근, 비, 범죄, 외로움, 노숙, 산불, 암, 아동, 배우자 학대, 지진, 알콜중독, 우박, 뇌졸중, 테러 폭발, 정치적 스캔들, 기업 파산, 홍수 (원하는 단어를 더 추가해라).
3. 소그룹에게 어떤 종류의 피난처가 위의 내용들과 연관되어 표시되었는지 보게하고 어떤 피난처도 소용없는 위협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라. 언급된 모든 위험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 보편적인 것이며 그것들에 대한 보호는 작거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4. 사람들로 하여금 앞에 언급된 여러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일어나는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토론하게 하라. 특별히 아무런 보호가 없어 보이는 위험에 대해 나뉘라. 역사적으로 같은 종류의 위험들이 인간들을 공포에 떨게 했으며 고대 시대때처럼 오늘날도 자연 재해를 대하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무력함을

느낀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옛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은 실제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성경 공부로 들어가라.

성경 공부 가이드

5. 사람들을 시편 91 편으로 인도하라. 소그룹(6명 이하)을 만들어 시편을 함께 읽고 명사와 동사를 분류해보도록 하라. 한 종류는 하나님의 보호(안식처, 피난처, 보호 등)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를 포함할 것이다. 또 다른 종류는 위험(역병, 전염병, 재난)의 단어들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보호, 사랑, 구원)의 단어를 자세히 나타내고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이 단어 구분 짓기를 끝마치면, 그룹별로 자신들이 분류한 각각의 내용에 대한 핵심을 내포할 수 있는 한 줄 요약을 만들게 하라. (이 연구를 위해 www.baptistwaypress.org에 있는 “Teaching Resource Items”에 가면 소그룹 지침을 얻을 수 있다)
6. 각 그룹이 요약된 내용을 함께 나누게 하라. 요약들이 어떻게 시인의 핵심 주제의 윤곽을 보여주는지 토론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시인이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하기 위해 많은 동의어를 사용한 이유를 생각하게 하라. 본문안에 나타난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공포를 유발하는 이미지들 그리고 두려움을 제거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미지를 토론하라. 이 시편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역할에 대해 생각을 나누도록 요청하라.
7.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편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에 대한 약속을 발견하게 하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와 같은 시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본문에서 비유적인 말의 기반이 되는 영적 진리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사람들은 이미지들을 시인이 의도한 것보다 더 문자적으로 취하려는 경향이 있음에 주의하라. 문학적 장르 - 이 경우에는 시 - 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 본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지 결정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토론하라.
8. 14-16 절에 “내가.. 할 것이다”[I will]라는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자. 하나님이 시편 91 편 다른 부분에서는 3 인칭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마지막 세 구절에서는 직접적인 1 인칭 표현과 함께 시인이 말한 모든 진리를 확증해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 세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과 나머지 구절 안에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 언급한 요청을 비교하게 하라.

적용 격려

9. 한 사람에게 시편 91 편을 소리내어 읽게하라. 이 특정한 시편이 어떻게 사람들의 두려움을 해결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도록 격려하는지 질문하라. 소그룹으로 모여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학습 공과*” 마지막에 있는 질문들에 답하게 하라. 그리고 그 질문들과 특별히 2-5 번을 토론하라 (시간이 짧다면 각 그룹이 하나 혹은 두 개의 질문만 담당할 수도 있다). 연구한 것을 발표하도록 하라. 시간이 되는데로 각자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나누도록 격려하라.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삶속에 역사하기 원하는지를 나누도록 격려해라. 소그룹안에서 기도로 공부를 마무리 해라.

[끝]

제 12 과	함께 경배하자, 함께 순종하자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시편 95</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시편 95</p>	<p>학습주제 하나님 께 대한 진정한 경배는 하나님 께 대한 충실한 순종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p> <p>탐구질문 당신의 주일 예배와 당신의 삶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p> <p>학습목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순종에 대한 나의 삶을 평가한다.</p>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시편 95 편은 예배를 위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회중이 부르거나 낭송하는 찬송가이다. 그것은 창조주와 우주의 왕으로서 주님을 경축하는 가을 축제의 일부일 수 있었다. 시편 95 편은 하나님을 "위대한 왕"으로 묘사하고 그의 백성들과 그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왕이신 주님께 다시 왕관을 씌워드리도록 회중을 부르는 것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언약 명령에 재헌신을 하도록 백성들을 부르셨습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 그들에게 경고했다.

시편 95 편은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 1-7c 절과 7d-11 절. 1-7c 절은 회중을 하나님과 마주 치도록 준비시키는 찬송가이다. 그 구절들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그들을 돌보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7d-11 절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종하도록 부르시는 경고다 (시편 81:8-16 에서 비슷한 경고를 보라). 시편 81 편과 마찬가지로 이 시는 주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도록 예배자들에게 강하게 권고하는 것을 결합시킨다. 이 시편은 설교와 같아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한다. 시편은 또한 예언의 전통과 조화를 이룬다. 예언의 전통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이 예배와 일치하도록 요구한다 (이사야 1:10-20 참조).

예배에 대한 두 번 부르심은 1-7c 절 안에 예배에 대한 두 번의 부르침이 있다: 1-2 절과 6 절이다. 이 각각의 구절들은 예배의 부르침에 대한 이유가 이어지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 ki 뒤에 각각 그 이유들이 설명되고 있다(시 95:3, 7). 출 15:21 에서 미리 암의 노래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편을 인용한 신약성경 구절들

히브리서 3:7-11, 15; 4:3, 5, 7

본문 해석

믿음의 고백 (95:1-7c)

95:1-2. 시는 주님을 경배하라는 부르침으로 시작된다. 이 구절들은 기쁜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 "노래하며," "하는 노래" "음악"과 "노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기뻐하는 음악은 고대부터 주님을 경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했습니다. 역 대상 13 장 8 절은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와 수금, 가사, 탬버린, 심벌즈와 나팔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모든 힘을 다해 경배 한 것을 묘사합니다"라고 시편 150 : 3-5 은 비슷한 용어로 주님의 경배를 묘사합니다 .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즐겁고 시끄 럽다.

연사는 회중에게 "우리 구원의 반석"인 하느님 께 찬양을 드려야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 자신의 땅에 정착 한 믿음만한 하나님이였다.

95:3-5. 이 구절은 하나님이 비교대상이 없다는 진리를 찬양한다.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존재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신들 위에있는 "위대한 왕"이시다. 3 절은 "~때문.." 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키(ki)로 시작한다. 시편은 사람들이 그의 위대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3 절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신이 존재한다고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약의 유일신론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출애굽기 15:11 과 같은 다른 구약 전서는 다른 신들의 존재를 암시한다. 어떤 해석자는 시편 95:3 에서 "신들"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천사를 의미한다고 말함으로써이 문제를 해결한다. 구약은 천사들(사무엘하 14:17)을 포함여, "여호와의 사자"(창세기 16:7), "하나님의 아들들"(욥기 1:6, NASB 번역, NIV84 역본은 "천사들"로 번역), "그룹들"(창 3:24), 그리고 스랍들(히브리어로는 "세라핌", 사 6:2) 과 같은 초인간적, 혹은 영적 존재들을 언급한다. 3 절에서 사용 된 히브리 단어는 엘로힘 (elohim)으로, 보통 "신"이라고 번역된다.

이 사실을 감안할 때,이 구절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은 만일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면 주님보다 열등하고 그분은 그들의 왕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다른 신성한 존재들이 영광스럽고 강력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고 그들을 지배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신성한 존재를 통치하실뿐만 아니라 우주도 창조하셨다. 그는 땅과 바다와 마른 땅의 깊음과 높음을 만들었다. 고대인들은 신성한 존재가 땅의 깊은 곳과 꼭대기에 살았다고 믿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곳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95:6-7c.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가장 강력하고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때문에 지구상에있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감사를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7a 절은 히브리 단어 키(ki)로 시작하여 이 시편에서 두 번째로 경배로 초청하고 있다. 3 절은 회중에게 주님을 경배하도록 촉구한다. 왜냐하면 그는 창조의 위대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 7a 절은 " 그는 우리의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그를 경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창조의 주권자일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시다. 7bc 절은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은 그분의 목초지의 양이라고 말한다. 목자의 형상은 따뜻하고 친밀하면서도, 왕권을 가지고 있다 (시 23:1-4, 삼하 5:2 참조).

이 구절들은 훌륭한 이미지들을 보여준다. 그 이미지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고 경계심에 가득 찬 목자의 사랑으로 돌보시는 피조물의 강력한 통치자로 묘사한다.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95:7d-11)

95:7d-9. 7 절의 마지막 줄은 백성들의 신앙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7 장 1 ~7 절에 기록된 사건의 예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비딤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그들은 목 말라졌다. 그들은 모세와 주님께 불평했다. 주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지시하셨다. 모세가 그렇게했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 모세는 이스라엘인들이 주님과 다투고 시험했기 때문에 그곳을 맛사 (시험을 의미함)와 트리바 (다툼을 의미 함)라는 이름을 지었다. 시편 95 편은 이 사건을 40 년간 방황했던 광야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공급해 주실 것을 의심했던 것처럼 이러한 시험과 테스트는 불신앙의 한 형태였다.

민수기 14:33-34 과 32:13 절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유를 다르게 제시한다는 것을 주목하라. 이 구절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대다수의 정탐꾼들의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셨다고 말한다. 신명기 8 장 2 절과 여호수아 5 장 6 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불순종이었던지는 특정하지 않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징계를 하셨다고 말씀한다. 아마도 가장 좋은 해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가지 불순종 행위로 인해 그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95:10-11.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심판에 관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십 년 동안 그들에게 진노하여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에게서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런 이유로 그는 그들이 결코 그의 "안식"에 들어 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안식"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었다. 온 세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기 전에 사라져야 했다.

주님은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에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도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도전하셨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의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는 그분에게 순종하게 하고 평화와 축복을 가져 오는 것임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또한 순종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신실한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성경에서 중요하다. 선지자들은 한 순간은 주님을 경배하고나서,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의 위선을 비난하셨다(사 1:11-17 참조).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다(누가복음 6:46-49 참조).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께서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고 즉시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기록했다(야고보서 1:23-25 참조).

시편 95 편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신약 성경 참조는 히브리서 3:7-11, 15; 4:3, 5, 7 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그들의 믿음을 두도록 촉구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 시편을 인용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지만 그것들에 불순종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결코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 것이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복음을 듣고도 믿음을 갖지 않으면 똑같은 운명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음 안에 믿음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핵심 의미

시편 95 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첫째, 그것은 우리가 모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요구한다. 거짓 예배는 공허하고 형식적이다. 참된 예배는 마음과 생각이 연루되는 것이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상기시키면서 진정으로 그를 경배하도록 돕는다. 또한 이 시편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 질서를 놓으셨다는 것을 말해준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있는 우주는 시편 기자가 알고있었던 우주보다 훨씬 더 광대하다. 그러나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 시편은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그는 우리의 하나님 이심을 상기시킨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적으로는 교회로,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간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내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목자시다.

둘째, 시편은 우리에게 예배의 표현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요구한다. 예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예배를 예배 밖의 생활과 분리된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분리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쇼핑몰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시편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일상생활과 예배를 분리시킬 수 없다. 주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그의 형상을 반영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킨다. 바울이 기록한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17).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반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 예배의 부분을 말하게 하고, 그 이유들을 설명하게 한다.
2. 반원 중 한 사람에게 박수의 일반적인 목적을 설명하도록 요청한다. 예를 들어, 박수는 연예인이나 연사에 대한 승인 또는 감사의 표현인가? 토론을 위해 다음 질문을 제기한다: 박수 갈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인가? 교회에서조차도 박수를 치는 자체는 본질적으로는 잘못된 것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그 사용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의미하는지 질문한다.
3. 질문한다: "예배"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이 떠오르나? 당신은, 혹은 당신의 교회는 성가대 찬양이 끝나거나 특송이 끝난 뒤에 박수를 치는가? 그 박수갈채는 누구를 향하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하고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침례 요한은 요한 복음 1장 23 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성경공부 인도

4. 누군가에게 시편 95 편 1 ~ 2 절을 읽으라고 권유한다. 묻는다, 예배에서 노래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예배에서의 찬양의 역할과 음악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토론한다.
5. 누군가가 시편 95 편 3 ~ 5 절을 읽게한다.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권위에 대한 이 이미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시편 기자의 목적에 대해 토론한다. 질문한다, 왜 시편 기자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과 돌보는 것에 먼저 초점을 두는 대신에 이러한 이미지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찬미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확증하고자하는 시편 기자의 의향을 지적한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하신 것과는 별개로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시다.

6. 시편 95 편 6-7 절을 읽게한다. 어떤 교회 예식에서는 사람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점에 유의하라.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하거나" "무릎을 꿇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한다. 반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몇 가지들을 제안하게 한다 (걱정, 죄책감, 비밀스러운 죄, 자존심 등). 예배자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고 자기 자신의 관심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토론한다.

7. 거짓 교회가 성서적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사람들이 성경을 홀로 읽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혹은 인종이나 경제적 지위 등을 근거로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화형에 처했던 때)를 회상하도록 요청하라.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자주 완고하고 반항적이었다. 출애굽기 17 장 7 절을 읽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누군가 시편 95:7d-11 절을 읽게한다. 시편 기자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려는 축복을 놓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을 강조한다.

적용 격려

8. 학습 공과 2, 3, 5 번을 참조하고 질문하라. 반원들이 생각을 나누고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용한다. 모든 반원들이 예배 시간에 일반적으로 가져오는 태도를 스스로 조용히 평가하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취할 단계를 고려하도록 격려하라. 기도로 수업을 마치라.

[끝]

제 13 과	주님의 변함 없는 사랑에 감사하라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시편 118</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시편 118</p>	<p>학습주제 시편 기자의 주님의 변함 없는 사랑에 대한 경험은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많은 이유들을 제공했다.</p> <p>탐구질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변함 없는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어떻게 반응할 계획인가?</p> <p>학습목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이유들을 파악하고 나의 감사들을 드린다.</p>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시편 118 편은 개인적인 감사의 시편이다. 초막절과 유월절과 같은 절기 때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유대인들은 에스라 시대의 성전 봉헌식에서 그것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에스라 6:15-18 참조). 많은 시편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언급들이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탈굄 (구약의 고대 아람어 번역)과 탈무드 (랍비 교훈의 모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노래, 또는 그것을 응답 낭송을 할 때 시편을 사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들은 성전 문 밖에서 시작하여 성전 안뜰에서 끝난 즐거운 행렬에서 그것을 사용했을 수 있으며, 제단 주변에서 춤을 추며 절정에 이른다.

시편 118 편은 도입 (1-4 절), 개인의 감사 (5-21 절), 순례자들의 합창 찬양 (22-25 절), 제사장의 축복과 춤에 대한 초대 (26-27 절), 하나님께 개인적인 감사 (28 절), 회중의 합창 (29 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약은 시편 118 편을 여러 구절에서 인용하고 있다 ("신약의 시편 인용문" 참조). 시편은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다. 마틴 루터 (Martin Luther)는 이렇게 썼다.

이것은 내 자신이 사랑하는 시편이다. 시편 전체와 성경 전체가 내 유일한 위로와 삶의 원천으로 내게 귀중하지만, 나는 특히 이 시편과 사랑에 빠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내 자신의 것이라고 부른다. 황제와 왕, 현자와 배운 자, 성도들까지도 나를 도울 수 없었을 때, 이 시는 친구가 되어 많은 큰 고난에서 나를 도왔다. 그 결과 교황, 투르크족, 황제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다. 나는 이 시편과 어떤 것보다도 교환하는 것을 가장 꺼려한다.

시편을 인용한 신약성경 구절들

마태복음 21:9, 42; 23:39; 마가복음 11:9-10; 12:10-11; 누가복음 13:35; 19:38; 20:17;
요한복음 12:13; 사도행전 4:11; 히브리서 13:6; 베드로전서 2:7

본문 해석

도입과 개인적인 감사 (118:1-21)

118:1-4. 시편은 응답의 합창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백성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아마도 개종자들로부터의 찬양을 표현한다 (시편 115:9-11의 비슷한 패턴을 보라). 각 그룹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은혜에 대해 증거한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성전에 들어가서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들은 왕 자신, 혹은 그를 대표하는 누군가가 인도한 행렬의 일부일 수 있다.

118:5. 이 구절은 21 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시작한다. 왕, 혹은 왕을 대표해서 말하는 한 개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것을 증거한다. 그의 감사는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처럼 보인다. 히브리어로 "고통"이라는 단어는 좁고 제한된 공간을 의미한다. 주님은 좁고 닫혀있고 위험한 공간으로부터 넓고 개방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그를 그를 옮겨 놓으셨다.

118:6-9.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계시는 한, 그를 해칠 수 없다고 말한다. 더욱이 사람은 하나님처럼 신뢰할 수 없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더 많이 알 수록, 사람들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13 장 6 절은 6 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권고가 담겨 있다. 문맥은 신자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있는 것에 만족할 것을 요청한다. 히브리서에서 그 단락은 신명기 31 장 6 절을 인용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시편 118 편 6 절을 인용하여, 그들을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해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신시켜준다.

시편 118:6-9 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삶에서 유일한 참된 안전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신자들은 사람들을 믿거나 그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에 믿음이 자랄 수 있다.

118:10-13. 왕은 하나님께서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를 구출하셨는지를 묘사한다. "여호와와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구원자이시다. 연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을 이겼다는 것을 안다. 그는 그 승리를 위해 자신이 한 일은 아무 것도 자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평행법으로, 각 절의 첫 줄은 위험을 묘사하고, 두 번째 줄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낸다. 모든 민족이 성난 벌들처럼 왕을 둘러싸고 그를 멸망 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여호와와 이름, 혹은 그 권능으로 그는 "그들을 끊어 버렸다"라고 말한다. 12 절에서 그는 "가시덤불의 불 같이 타 없어져" 죽었다고 말한다. 마른 가시 나무는 탈 때는 순식간에 타버린다. 그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신속한 파멸은 인간의 힘이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인간을 인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118:14-16.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힘있는 영웅으로 묘사한다. 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시기 위해 손을 뻗으신다. 시편 기자와 회중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다. 구약에서 오른 손은 강력한 손이다. 14 절은 출애굽기 15 장 2 절의 인용문이며 이사야 12 장 2 절에도 같은 설명이 나와 있다.

118:17-18. 주님께서서는 10-13 절이나 다른 사건에서 묘사된 상황으로 인해 연사를 징계 하셨다. 이 징벌은 거의 그의 목숨을 잃을 뻔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셨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을 통해 그에게 새로운 삶과 목적을 주셨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에 대해 증거 할 수있었다. 또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게되었다.

118:19-20. 이 구절은 행렬이 성전에 들어오는 입장 의식을 의미 할 수 있다. 19 절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의 요청일 수 있고, 20 절은 문지기의 응답일 수 있다. 오직 의인들, 즉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118:21. 연사는 그를 구해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린다.

순례자들의 합창 찬양 (118:22-25)

118:22-23. 22-25 절은 회중의 간증을 보여주는데, 동사의 시제가 1 인칭 단수에서 1 인칭 복수로 전환된다. 22 절은 기대를 뒤집는 이미지다. 건물을 짓는 돌들을 찾기 위해 시골로 나가는 건축업자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하나의 이상한 모양의 돌을 발견하지만, 그것이 어느 곳에도 들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던져 버린다. 그들은 건물을 거의 완성하려고 할 때, 이상한 모양의 공간을 남겨 둔다. 그들은 현장의 돌을 기억하고 그것을 찾아낸다. 그것은 완벽하게 들어맞고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 된다.

구약 성경에서 이 구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때 추방 당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세상은 그들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자기들을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나중에 유대교는 이 구절이 다윗과 메시아를 언급했다고 가르쳤다. 신약은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 (눅 20:17, 행 4:11, 벧전 2:7 은 오직 시 118:22 을 참조한 것이다. 마 21:42 과 막 12:10-11 은 시 118 :22-23 을 참조한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이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의 궁극적인 본보기다.

23 절에서 회중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방법에 경탄한다.

118:24-25. 과거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도로 발전한다. 회중은 오늘의 시작에 대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종일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여호와여" 라는 말의 반복은 기도의 열렬함을 반영한다.

제사장의 축복, 개인의 감사 (118 : 26-29)

118:26-27. 제사장이 왕과 왕의 행렬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말들을 했었을 수 있다. 이 구절들은 함께 뭉쳐져서 행렬에 대한 인사와 축제 의식에 합류하기 위한 초대를 구성한다. 26 절의 첫 부분 "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라는 말이 왕에게 전해진 것이다. 두 번째 부분 " 우리가 여호와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는 말은 "너희"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회중에게 전달된 것이다.

신약은 26 절을 두 가지 다른 맥락에서 인용하고 있다. 첫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행렬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인용했다 (마 21:9, 막 11:9, 눅 19:38, 요 12:13 참조). 이 맥락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된 다윗 왕이신 메시아라는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애도에서 그것을 인용하셨다 (마 23:39, 눅 13:35 참조). 그는 예루살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할때까지 그 도시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27 절은 행렬단이 성전 앞 제단 주위에서 축제의 춤을 추기를 요청한다. 제단은 직사각형이며 그 "뿔"은 모퉁이에 꾸며져 있다.

118:28-29. 이 구절은 왕과 그 행렬의 마지막 감사이다. 그들은 제단 주위에서 춤을 추면서 이 말을 찬송가로 불렀을 수 있다. 29 절은 1 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감사의 표현들로 시편을 구성한다.

핵심 의미

이 기쁜 노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을 포함하여 시편에 자주 나오는 주제들을 표현한다. 그것은 사람에게 도움과 구원을 의존하는 공허함을 지적한다. 도움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 또한 성경 전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를 표현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를 거꾸로 뒤집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귀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시고 그 반대로 인간이 천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전능한 구세주이시기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가 오직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가치의 궁극적인 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보내셔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 주시고 구원하셨다. 그는 이스라엘에 먼저 왔으나 이스라엘은 그를 거절했다. 이스라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 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묵상하도록 초청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출 해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감사 드리는 것을 잊어 버린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헤아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된다.

이 시편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 생각하도록 권유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서 벗어나 세상적인 가치를 채택 할 수 있다. 구원은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을 수 있다. 시편 118 편은 "그는 선하시" 의로우시며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주께 감사하라"(시 118:1, 29)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궁극적으로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의 제단 주위에서 노래하고 즐거워하도록 초대한다.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반원들에게 재미있고 창조적이며 드라마틱했던 기억에 남을 감사의 표현을 들려 주도록 부탁한다. 그것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설명하게 한다. 반원들에게 어떤 사람이 감사를 표현했지만 그 사람의 진실성이 의심갔었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들이 감사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진실하고 효과적인 감사의 특징들을 제시하게 하라.

2. 자원자 한 사람이 누가복음 18 장 11~12 절을 읽게하라. 반원들에게 그들이 조금 전에 제시했던 특징들의 목록에 어긋나는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를 평가하게 한다. 바리새인이 기도했을 때 그의 진정한 태도와 동기를 가리키는 단서들을 토론하라.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 하셨는지 물어보라. 이 공과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 드리고 찬양하는 기도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한다.

성경공부 인도

3. 다른 사람에게 시편 118 편 1-4 절을 읽으라고 요청한다. 회원들에게 반복되는 어구를 찾아 보게 하라. 시편 기자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라는 말을 네 번 반복한 이유를 묻는다. 고대 작가들은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반복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중요한지 토론한다.

4. 누군가가 5-7 절을 읽게 한다. 이 섹션에 사용되는 "고통", "두려운" 및 "적"이라는 단어를 가리키라. 반원들에게 각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게한다. (그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등).

5. 누군가가 8-9 절을 읽도록 요청한다. 이 구절에 나타나는 대조들을 토론한다. 질문하라, 시편 기자가 사람이나 정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6. 누군가가 10-13 절을 읽게한다. 이 구절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열악한 상황에 대한 연사 (演士)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반원들에게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을 나누도록 권유하라. 질문한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습니까? 그 경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의 능력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7. 반원들에게 축구, 야구, 농구, 축구 등의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여부를 묻는다. 질문하라, 응원하는 팀이 골을 넣거나 달릴 때의 반응은 무엇인가? (기쁨에 찬 환호가 승리의 기쁨을 증명한다.) 누군가 14-17 절을 읽게하라. 이 구절에서 스포츠 관중의 이미지를 예배자로 비유하라. 주님께서 그들을 파멸에서 구출 해주셨 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은 더욱 커졌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음에 유의하라.

8. 누군가 18-21 절을 읽게한다. 18 절에있는 하나님의 훈련이 어떻게 19-20 절의 의를 가능하게 하는지 지적한다.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구속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를 깨우 치고 감사함, 찬양 또는 예배의 표현을 방해하는 죄책감을 제거하시기 위한 지혜로 교훈하시기 위해 사용하신다.

9. 누군가가 22-29 절을 읽도록 부탁한다.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였는지 관찰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는 시편 기자의 힘을 소비하게 했다. 그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

적용 격려

10. 반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깊이를 생각해 보도록 격려한다. 우리는 기도에 감사의 말을 집어 넣거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진정으로 인식하는가? 반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성실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기도로 수업을 마친다.

[끝]

부활절	경험하는 것, 믿는 것, 말하는 것
<p>핵심본문 요 20:1-18</p> <p>배경 요 20:1-18</p>	<p>학습주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을 확증하고, 우리에게 그를 따르도록 요청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 전하도록 요청한다.</p> <p>탐구질문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는가?</p> <p>학습목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묘사하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 것을 회상한다.</p>

성경 주해

배경이해

요한의 부활 기록은 다른 복음서와 대조되며 다른 복음서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자료가 들어 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한 명 이상의 다른 여자와 함께 무덤에 갔다 (마 28:1, 마가복음 16:1, 누가복음 24:1, 10). 요한복음 기록에서는 그녀는 혼자 갔다. 마리아가 무덤 근처의 예수와 만난 것에 대한 요한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빈 무덤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 후에 그녀에게 나타나셨다. 이 복음서는 베드로가 빈 무덤을 방문한 것을 보다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다른 제자"(전통적으로 요한이라고 생각 함)가 그와 함께 갔다고 말한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후 모습을 보다 광범위하게 설명한다. 모든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죽음에서부터 부활 하셨고, 여성들은 무덤을 방문하고 예수님이 부활 하셨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또한 모든 복음서는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파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본문 앞 부분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수 있는지 물었던 것을 기록한다 (요 19:38-42). 빌라도는 요셉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매장을 준비했다. 유대인의 관습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고 그것을 세마포로 감쌌다. 안식일은 해질녘에 시작되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나고 해가 아직 떠 있었으므로, 그들은 전에 사용된 적 없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마태 복음 27 장 60 절에 이 무덤은 요셉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 해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수요일에 묻히셨다.¹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무덤을 방문하지 않았다. 우리 본문은 일요일 새벽에 일어난 일을 알려준다.

본문 해석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 함 (20:1-2)

20:1.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추종자들 중 하나였다. 그녀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누가복음 8 장 2 절에 있다. 그녀의 이름은 갈릴리를 여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 명단에 나타난다. 누가는 악령과 질병을 치료한 여성들 속에 그녀를 포함시켰다. 그는 예수님이 일곱 귀신을 그녀에게서 쫓아 냈다고 말했다. 교회의 잘못된 전통은 그녀를 창녀라고 말해 왔지만 성경 구절은 이 신분을 지지하지 않는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자신의 돈을 드렸다 (누가복음 8:3 참조).

그 당시에 가족들은 무덤을 사서 여러 가족을 묻기 위해 사용했다. 무덤 안에는 벽에 낮은 선반과 큰 박스가 있었다.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은 장례식을 위해 시체를 준비한 뒤 시체를 선반 위에 놓았다. 그 다음에 그들은 큰 돌로 입구를 막았다. 그래서 몸은 훼손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난 후에, 다음 가족이 죽었을 때 무덤을 열고 선반에서 뼈를 꺼내 상자에 넣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방금 죽은 사람을 위한 장례 절차를 반복했다. 요셉의 무덤은 이전에는 사용된 적이 없었으므로 뼈는 존재하지 않았다.

¹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신 날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논쟁들이 있다. 영어 원저자는 전통적인 요일인 금요일로 이야기 하고 있으나 한국어 편집자인 본인은 몇 가지 전제되어야 하는 사실을 대입할 때 유월절 직전인 유월절 준비일 (수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아직 일할 수 있는 유월절 안식일 직전에 (수요일 해지기 전)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하고, 목요일 (수요일 해진 후, 즉 유월절 안식일) 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 (토요일 안식일)까지 온전한 삼일 밤, 삼일 낮 동안 무덤에 계셨고, 토요일 해진 후 (즉 주일) 어느 시점에 부활하셨다고 본다. 막 16:1 을 보면 안식일 (유월절 안식일)이 지난 후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는데, 이는 일을 하거나 물건을 살 수 없는 유월절 안식일과 토요일 안식일 사이에 평일이 (목요일 해진 후부터 금요일 해지기 직전까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도 감안한 요일 계산이다. (편집자 주).

20:2.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 왔다.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옮기거나 훔쳤다고 추측했다. 무덤 도둑이 그 지역에서 흔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두 제자, 즉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를 발견했다. "사랑하시던" 사람을 위해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종종 형제와 같은 사랑을 의미하는 어근인 "필리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통적인 견해는 이 "다른 제자"가 겐손에서 이 에둘러 말라하는 용법을 사용했던 사도 요한 이었다는 것이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다 (20:3-9)

20:3-5. 요한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그는 안을 들여다 보았지만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는 무덤 안쪽에 있는 세마포 조각을 보았다. 이것들은 예수님의 매장 옷의 일부였다.

20:6-7. 베드로는 무덤 입구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즉시 들어갔다. 그는 요한이 본 세마포의 띠를 보았고, 예수님의 머리 주위를 감았었던 터번, 혹은 천을 보았다. 예수님의 무덤 옷은 나사로 사람들의 것과 비슷하게 보인다 (요한복음 11:44 참조).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천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접혀 있었다. 현장의 깔끔함은 무덤 도둑들이 거기에 없었음을 암시한다. 물건을 훔치고 얼른 도망가야 할 도둑들이 예수님의 머리 천을 일부러 접으면서까지 시간을 보내며 곤경에 빠지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20:8. 베드로가 들어선 후 요한도 들어갔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에서는 그가 보고 "믿었다"고 말한다. 헬라어 본문도 또한 그가 보고 믿었던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본문은 그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 요한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믿음이 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신 것에 대한 정의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그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든,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이 그 날 멋진 일을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20:9. 요한의 믿음에 대한 확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복음서의 일관된 주제 중 하나는 제자 중 누구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8 장 31 절, 요한복음 2 장 19~22 절 참조)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언급이 비밀스러웠거나 이런 종류의 부활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 (20:10-18)

20:10-12. 무덤에 홀로 남겨진 마리아는 슬픔에 압도 당했다. 그녀가 허리를 굽혀 무덤을 들여다 보았을 때, 두 명의 천사가 흰 옷을 입고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선반 위에 앉아 있었다. 하나는 그의 머리가 있던 곳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발이 있던 곳이었다. 유대인 율법은 재판관은 무언가를 사실로 입증하기 위해 두세 증인을 가져야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두 명의 천사가 있었을 수도 있다 (신 17:6; 19:15 참조).

20:13. 그녀의 슬픔 때문에, 마리아는 무덤에있는 사람들을 천사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왜 그녀가 울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 갔고 어디로 가지고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대답했다.

20:14-15. 마리아는 돌이켜 무덤 바깥에 서있는 누군가를 발견했다. 이 사람은 천사들이 했던 질문을 반복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 질문에서의 암시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위한 때라는 것이다. 완전히 낯선 사람이 마리아에게 그녀가 누구를 찾는지 물었다. 마리아는 그 사람이 그 무덤을 돌보는 동산지기라고 생각했다. 왜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 보지 못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눈물이 흐려져 시력이 흐려지고 빛이 약하거나 예수님의 외모와 목소리가 예전의 모습과 조금 달랐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마리아는 자신이 동산지기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물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어쩌면 동산지기가 정당한 이유로 그를 옮겼을 수도 있었다.

20:16. 예수님은 마리아를 그 이름으로 불렀다. 예수님의 목소리의 음색이나 그가 부른 이름에 관한 것이 그가 누구인지 밝히 드러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돌아 서서 "선생님"이라는 뜻의 아람어인 "랍오니" 라고 부르짖었다. 아마도 아람어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말한 언어 일 것이다.

20:17. 요한 복음의 신비 중 하나는 27 절에서는 도마에게 자신을 만져보라고 권유한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금지한 이유이다. 헬라어 본문의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붙잡고 매달리지 마라 (즉, "그만 놓으라" 편집자 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미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신은 더 이상 그녀가 알고 있었던 이 땅의 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였다. 그녀는 예전의 예수님의 모습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녀가 그에게 매달리는 대신 제자들에게 그가 살아났음을 알리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그는 그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강한 유대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라고 말씀하셨다. (강조를 위해 이탤릭이 추가되었음)

20:18.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충실히 전했다. 그녀의 메시지는 "내가 주를 보았다!" 였다. 그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경험에 대한 간증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이었다.

핵심 의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말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다. 그것은 예수님 께서 메시야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보내신 기름 부음받은 자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고,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인은 여자였으며, 부활에 대한 소식을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이 여자였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꾸며내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히 나타낸다. 후자의 두 가지 사실은 고대 세계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누군가이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면, 여성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마리아의 경험 패턴은 그리스도인 제자 훈련의 패턴을 반영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면하신다. 그는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면하시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를 대면하신다. 그는 몸인 교회를 통해, 성경의 증거를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다. 이것들은 예수님과의 세 번의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실재를 통한 한 번의 만남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만남은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놓고 그분이 살았던 길을 추구할 때 우리를 변화시킨다.

또한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분의 제자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간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메시지를 이 세상에 선포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의미에서 붙들지 않는다. 그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을 놓아드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가르침을 세상에 선포한다. 오늘날 예수께서 사람들이 그분에 관해 듣기 위해 제공하신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한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부활절기 뿐만 아니라 일 년 내내 그렇게 할 수 있다.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우리가 누구를 (또는 무엇을) 기대했는지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를 혼란스럽게하는 경향이 있음에 유의하라. 공과가 계속 될 때 빈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경험에 관해 반원들이 생각하도록 격려한다.

2.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요한의 기록에는 빈 무덤에 대하여 공포, 혼란, 불확실성, 오해 등 다양한 감정을 가진 세 인물이 묘사되어 있음을 주목하라.

A. 다음을 질문하라.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사건에 대한 당신의 즉각적인 관점과 반응을 어느 정도 바꿀 것 같은가? 오늘 당신의 9/11 에 관한 생각은 처음 듣게 된 때와 어떻게 다른가?

B. 반원들에게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한 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미친 영향은 그녀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성경공부 인도

3. 누군가 요한복음 20 장 1~9 절을 읽게한다. 반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관련된 평행 구절을 읽게한다. 마태복음 28:1~4; 마가복음 16:1-4; 누가복음 24:1-3.

A. 이 구절들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비슷한가?

B. 여성들은 각 이야기의 중심이었다. 질문한다, 하나님 께서 이 여인들에게 부활 이야기를 말기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C. 반원들에게 빈 무덤을 목격하고 무덤 옷을 보았을 때 마리아, 시몬 베드로, 요한이 직면한 감정적이고 지적인 혼란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한다.

4.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성경적 증거에 덧붙여, 인간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이야기의 확실한 타당성을 제공한다고 반원들에게 말해 준다. 예를 들어 제자들이 음모를 만들어내는 것의 불가능성이나, 소심한 그들이 주님을 위한 대담한 증인 - 순교자 - 으로 바뀐 것과 같은 사실을 제안하라.

A. 질문: 왜 여러분은 부활이 그와같은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B. 질문 : 주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물리적 근접성이 우리에게 그 중요성을 확대시켜준다고 생각하는가?

5. 누군가 20:10-12 을 읽게 한다.

A. 반원들에게 두 천사의 모습에 대해 나누도록 인도한다. 왜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B. 천사의 출현은 어떤 식으로 마리아가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6. 다른 사람이 20 장 13~14 절을 읽도록 초대한다. 마리아가 천사의 질문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 토론하도록 반원들을 인도한다.

7. 반원 중 한 사람이 20:10-17 을 읽게 한다. 천사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가 왔을 때의 그 부드러움을 지적한다.

- A. 질문한다: 그 태도는 우리가 혼란 스럽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픔으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당신에게 무엇을 제시하는가?
- B. 질문한다: 예수님 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녀의 반응과 감정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 C.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 나를 붙들지 말라" 고 지시하신 말씀을 참조하라. 질문한다: 오늘날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가? "(붙잡지 말고 오히려) 내 형제들에게 (가서)²"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용 격려

8. 20:18 을 읽으라. 질문한다: 만일 당신이 마리아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떤 증언을 했을까?

- A. 모든 신자가 간증을 갖고 있지만 모든 신자가 그것을 기꺼이 나누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반원들에게 상기시킨다.
- B. 반원들에게 마리아의 간단한 간증을 함께 말하게한다. "내가 주를 보았다!"
- C. 반원들에게 부활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매일의 삶에 반영하고, 부활한 그리스도와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하도록 격려한다.

[끝]

² 편집자 주: KJV 와 NASB 같은 영어 성경은 괄호 안에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ⁱ For more details, see W. H. Bellinger, Jr., Psalms: Reading and Studying the Book of Praises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90), 17-31, which also includes a helpful brief summary of the 20th century contributions of Hermann Gunkel, Claus Westermann, Sigmund Mowinckel, and Brevard Childs.

ⁱⁱ See Bellinger, Psalms: Reading and Studying the Book of Praises, 8-14

ⁱⁱⁱ See Exodus 19—20.

^{iv} John I. Durham, “Psalms,” The Broadman Bible Commentary, vol. 4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71), 185.

^v Durham, “Psalms,” 185.

^{vi} John I. Durham, “Psalms,” The Broadman Bible Commentary, vol. 4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71), 197.

^{vii} See lesson one under the heading “Interpreting the Scriptures.”

^{viii} “Count Your Blessings,” lyrics by Johnson Oatman, Jr. (1856-1922).

^{ix} See Bernhard W. Anderson, Out of the Depths: The Psalms Speak for Us Toda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50-51.

^x Anderson, 56.

^{xi} Anderson, 72.

^{xii} For my sermon preached on Good Friday about that loss and this lament psalm, see “‘Good’ Friday: In the Face of Death (Psalm 22; Psalm 31:5; Luke 23:33-43, 46),” Review & Expositor 105 no. 2 (Spring 2008), 313-322. For more information, see <http://rande.org/spring08.htm>. Accessed 10/24/12.

^{xiii} James Luther Mays, Psalm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4), 145.

^{xiv} Mays, Psalms, 147.

^{xv} Mays, Psalms, 147.

^{xvi} 다른 언급이 있기 전까지 제 10 과부터 제 13 과 그리고 부활절 교재는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1984 edition 에서 인용했다.